

# 2024 수능 국어 대비

백분위 99%를 위한 1%를 담다.

*why*

2024  
수능  
국어

## 문학

평가원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답을 찾다.



\* 1 회 차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18학년도 9월 평가원 )

(가)

<sup>1</sup>꿈을 아느냐 내게 물으면,  
<sup>2</sup>플라타너스,  
<sup>3</sup>너의 머리는 어느덧 파이란 하늘에 젖어 있다.

<sup>4</sup>너는 사모할 줄을 모르나,  
<sup>5</sup>플라타너스,  
<sup>6</sup>너는 내게 있는 것으로 그늘을 늘인다.

<sup>7</sup>먼 길에 올 제,  
<sup>8</sup>㉠홀로 되어 외로울 제,  
<sup>9</sup>플라타너스,  
<sup>10</sup>너는 그 길을 나와 같이 걸었다.

<sup>11</sup>이제 너의 뿌리 깊이  
<sup>12</sup>나의 영혼을 붙여넣고 가도 좋으련만,  
<sup>13</sup>플라타너스,  
<sup>14</sup>나는 너와 함께 신이 아니다!

<sup>15</sup>수고론 우리의 길이 다하는 어느 날,  
<sup>16</sup>플라타너스,  
<sup>17</sup>너를 맞아 줄 검은 흙이 먼 곳에 따로이 있느냐?  
<sup>18</sup>나는 오직 너를 지켜 네 이웃이 되고 싶을 뿐,  
<sup>19</sup>그곳은 아름다운 별과 나의 사랑하는 창이 열린 길이다.

- 김현승, 「플라타너스」 -

(나)

<sup>1</sup>선뜻! 뜨인 눈에 하나 차는 영창  
<sup>2</sup>달이 이제 밀물처럼 밀려오다.

<sup>3</sup>미옥한 잠과 베개를 벗어나  
<sup>4</sup>부르는 이 없이 불러 나가다.

<sup>5</sup>한밤에 ㉠홀로 보는 나의 마당은  
<sup>6</sup>호수같이 둥긋이 차고 넘치노나.



MEMO

7쫓그리고 앉은 한옆에 흰 돌도  
 8이마가 유달리 함초롬 고와라.  
 9연연턴 녹음, 수묵색으로 짙은데  
 10한창때 곤한 잠인 양 숨소리 설키도다.  
  
 11비둘기는 무엇이 궁거워\* 구구 우느뇨,  
 12오동나무 꽃이야 못 견디게 향그럽다.

- 정지용, 「달」 -

\* 궁거워 : 궁금하여.

1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복적 호명을 통해 중심 대상으로 초점을 모으고 있다.
- ②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의 이중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색채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고풍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현재형 진술을 통해 대상의 역동적 성격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상승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물의 변화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2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의 관조적 자세를, ㉡은 화자의 반성적 자세를 보여 준다.
- ② ㉠은 화자가 경험한 시련을, ㉡은 화자가 간직한 추억을 환기한다.
- ③ ㉠은 화자의 무기력한 태도를, ㉡은 화자의 담담한 태도를 표현한다.
- ④ ㉠은 화자의 적막한 처지를, ㉡은 화자를 둘러싼 고즈넉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 ⑤ ㉠은 현실에 대한 화자의 회의감을, ㉡은 앞날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을 부각한다.

MEMO

3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와 (나)는 특정한 공간에서 사물과 교감하는 화자의 내면을 보여 준다. (가)의 화자는 삶의 여정이자 구도적 공간인 '길'에서 이상 세계인 '하늘'을 지향하는 소망을 드러낸다. (나)의 화자는 달밤의 조화로운 풍경을 포착하는 심미적 공간인 '마당'에서 사물의 아름다움에 대한 충만한 정서를 드러낸다.

- ① (가)의 화자는 '플라타너스'와 '같이' 걷는 모습에서, (나)의 화자는 '흰 돌'의 '유달리' 고운 '이마'를 알아채는 모습에서 사물과의 교감을 보여 주는군.
- ② (가)의 화자는 '어느 날'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삶의 여정을 드러내고, (나)의 화자는 '한밤'에 '밀물'처럼 밀려온 달빛을 통해 조화로운 풍경을 포착하는군.
- ③ (가)의 '창'은 화자와 '하늘'을 잇는 매개체로서 이상 세계의 완전함을, (나)의 '영창'은 화자의 내면과 외부 세계를 잇는 매개체로서 화자의 만족감을 상징하는군.
- ④ (가)는 반짝이는 '별'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의 아름다움을, (나)는 차고 넘치는 '호수'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가 느끼는 '마당'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군.
- ⑤ (가)의 화자는 '플라타너스'와 '이웃'이 되어 구도의 '길'을 함께 하고자 하는 소망을, (나)의 화자는 오동 꽃이 '못 견디게 향스럽다'고 표현하여 자연에 대한 감흥을 드러내는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21학년도 6월 평가원 )

M E M O

(가)

<sup>1</sup>높으디높은 산마루

<sup>2</sup>낮은 고목(古木)에 못 박힌 듯 기대어

<sup>3</sup>내 홀로 긴 밤을

<sup>4</sup>무엇을 간구하며 울어 왔는가.

┌  
[A]  
└

<sup>5</sup>아아 이 아침

<sup>6</sup>시들은 핏줄의 굽이굽이로

<sup>7</sup>사늘한 가슴의 한복판까지

<sup>8</sup>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

<sup>9</sup>이제 눈감아도 오히려

<sup>10</sup>꽃다운 하늘이거니

<sup>11</sup>내 영혼의 촛불로

<sup>12</sup>어둠 속에 나래 떨던 샛별아 숨으라.

<sup>13</sup>환히 트이는 이마 우

<sup>14</sup>떠오르는 햇살은

<sup>15</sup>시월상달의 꿈과 같고나.

<sup>16</sup>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sup>17</sup>오래 잊었던 피리의

<sup>18</sup>가락을 더듬노니

<sup>19</sup>새들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sup>20</sup>사슴과 토끼는

<sup>21</sup>한 포기 향기로운 싸릿순을 사양하라.

<sup>22</sup>여기 높으디높은 산마루

<sup>23</sup>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sup>24</sup>내 홀로 서서

<sup>25</sup>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  
[B]  
└

- 조지훈, 「산상(山上)의 노래」 -

(나)

<sup>1</sup>꽃이 피었다.

<sup>2</sup>도시가 나무에게

<sup>3</sup>반어법을 가르친 것이다

MEMO

<sup>4</sup>이 도시의 이주민이 된 뒤부터  
<sup>5</sup>속마음을 곧이곧대로 드러낸다는 것이  
<sup>6</sup>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나도 곧 깨닫게 되었지만  
<sup>7</sup>살아 있자, 악착같이 **들뜬 뿌리**라도 내리자  
<sup>8</sup>속마음을 감추는 대신  
<sup>9</sup>비트는 법을 익히게 된 서른 몇 이후부터  
<sup>10</sup>나무는 나의 스승 그가 견딜 수 없는 건  
<sup>11</sup>꽃향기 따라 나비와 벌이  
<sup>12</sup>붕붕거린다는 것,  
<sup>13</sup>**내성이 생긴 이파리**를  
<sup>14</sup>벌레들이 변함없이 아삭아삭  
<sup>15</sup>뜯어 먹는다는 것  
<sup>16</sup>도로변 **시끄러운 가로등** 곁에서 허구한 날  
<sup>17</sup>**신경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피어나는 꽃  
<sup>18</sup>참을 수 없다 나무는, 알고 보면  
<sup>19</sup>**치욕으로 푸르다**

- 손택수, 「나무의 수사학 1」 -

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주변 풍경을, (나)는 공간의 이동에 따른 풍경 변화를 묘사하고 있다.
- ② (가)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자연의 위대함을, (나)는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자연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③ (가)는 명령형 어조를 활용하여 대상의 행동을 유도하고, (나)는 단정적 진술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인격화된 사물을 청자로 하여 화자의 소망을 전달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도치된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MEMO

5 [A]와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높디높은 산마루'에서 화자를 울게 한 문제는 [B]의 '여기 높디높은 산마루'에서의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다.
- ② [A]의 '못 박힌 듯' 기댄 자세는 과거의 고통을, [B]의 '웃자락을 날리며' 서 있는 자세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 ③ [A]의 '긴 밤'에 담긴 부정적 상황은 '이 아침' 이후 [B]의 '맑은 바람'을 동반하는 새로운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
- ④ [A]의 '무엇'이 [B]의 '무엇'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래 떨던 샛별'과 '향기로운 싸릿순'은 화자의 지향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 ⑤ [A]의 '간구'는 '사늘한 가슴'의 생명력 회복을 바라는 기원을, [B]의 '노래'는 '메마른 입술'에 생명력이 회복된 이후의 소망을 표출하고 있다.

6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나무의 수사학 1」의 화자는 도심 속 가로수를 관찰하며 도시를 비판적으로 조망한다. 도시의 가로수는 나무의 푸름이나 아름다운 꽃조차도 도구적 가치에 의해서 평가된다.

화자는 삭막한 도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참아 내며 꽃을 피우는 모습을 나무의 반어법으로 인식한다. 도시에 제대로 뿌리박지 못하면서도 도시 환경에 적응하여 꽃을 피우는 나무에서 치욕을 읽어 낸 것이다. 그것은 도시의 이주민인 화자가 나무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는 이유이기도 하다.

- ① '들뜬 뿌리'는 나무가 처한 상황에 대한 화자의 동질감을 반영하고 있군.
- ② '내성이 생긴 이파리'는 나무가 도시에 적응하면서 지니게 된성질을 보여 주는군.
- ③ '시끄러운 가로등 곁'은 꽃을 피우며 참아 내야 할 삭막한 도시 환경을 드러내고 있군.
- ④ '신경증과 불면증'은 나무가 도시에 적응하기 위해 견뎌 내야 할 고통을 보여 주고 있군.
- ⑤ '치욕으로 푸르다'는 도구적 가치로 평가받아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나무에 대한 비판적 표현이군.



MEMO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22학년도 9월 평가원 )

(가)

<sup>1</sup>돌담으로 튼튼히 가려 놓은 집 안엔 검은 기와집 종가가 살고 있었다. <sup>2</sup>충충한 울 속에서 거미 알 터지듯 흩어져 나가는 이 집의 지손(支孫)\*들. <sup>3</sup>모두 다 싸우고 찢고 헤어져 나가도 오래인 동안 이 집의 광영(光榮)을 지키어 주는 신주(神主)\*들은 대머리에 곰팡이가 나도록 알려지지지는 않아도 종가에서는 무기처럼 아끼며 제삿날이면 갑자기 높아 제상(祭床) 위에 날름히 올라앉는다. <sup>4</sup>큰집에는 큰아들의 식구만 살고 있어도 제삿날이면 제사를 지내러 오는 사람들 오조 할머니와 아들 며느리 손자 손주며느리 칠촌도 팔촌도 한데 얼리어 낭닝거린다. <sup>5</sup>시집갔다 쫓겨 온 작은딸 과부가 되어 온 큰고모 손꾸락을 빨며 구경하는 이종 언니 이종 오빠. <sup>6</sup>한참 찜찜 울리던 옛날에는 오조 할머니 집에서 동원 뒷밥\*을 먹어왔다고 오조 할머니 시아버니도 남편도 동네 백성들을 곧잘 잡아들여다 모말굴림\*도 시키고 주릿대를 앵기었다고. <sup>7</sup>지금도 종가 뒤란에는 중복사 나무 밑에서 대구리가 뻗뻗뻗한 달걀귀신이 용용거린다는 마을의 풍설. <sup>8</sup>종가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일을 안 해도 지내 왔었고 대대손손이 아-무런 재주도 물리어받지는 못하여 종갓집 영감님은 근시 안경을 쓰고 눈을 찻찻거리며 먹을 궁리를 한다고 작인(作人)들에게 고리대금을 하여 살아 나간다.

- 오장환, 「종가」 -

- \* 지손 : 말이가 아닌 자손에서 갈라져 나간 파의 자손.
- \* 신주 : 죽은 사람의 위패.
- \* 뒷밥 : 고사나 제사를 지낸 후 객귀를 위해 차리는 상.
- \* 모말굴림 : 곡식을 담은 그릇 위에 무릎을 꿇리는 형벌.

(나)

- <sup>1</sup>노래는 심장에, 이야기는 뇌수에 박힌다
- <sup>2</sup>처용이 밤늦게 돌아와, 노래로써
- <sup>3</sup>아내를 범한 귀신을 꿰어 엮드리게 했다지만
- <sup>4</sup>막상 목청을 떼어 내고 남은 가사는
- <sup>5</sup>베개에 떨어뜨린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 <sup>6</sup>하지만 처용의 이야기는 살아남아
- <sup>7</sup>새로운 노래와 풍속을 짓고 유전해 가리라
- <sup>8</sup>정간보가 오선지로 바뀌고
- <sup>9</sup>이제 아무도 시집에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
- <sup>10</sup>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말 속에
- <sup>11</sup>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는다
- <sup>12</sup>그러나 내 걱정의 상처는 노래에 쉬이 덧나
- <sup>13</sup>다스리는 처방은 이야기일 뿐
- <sup>14</sup>이야기로 하필 시를 쓰며

[A]

[B]



<sup>15</sup>뇌수와 심장이 가장 긴밀히 결합되길 바란다.

- 최두석, 「노래와 이야기」 -

MEMO

7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 집의 지손들’이 ‘거미 알 터지듯 흩어져 나’간다는 데서, 종가의 변성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다.
- ② ‘오래인 동안 이 집의 광영을 지키어 주는 신주들’이 ‘제삿날이면 갑자기 높아 제상 위에 날름히 올라앉는다’는 데서, 종가에 대한 풍자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③ ‘동네 백성들을 곧잘 잡아들여다 모말굴림도 시키고 주룻대를 앵기었다’는 데서, 종가의 위세에 대한 시기심을 드러낸다.
- ④ ‘종가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일을 안 해도 지내 왔었고 대대손손이 아무런 재주도 물리어받지는 못’했다는 데서, 종가의 내력을 존중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 ⑤ ‘근시 안경을 쓰고 눈을 찻찻거리’는 ‘종갓집 영감님’이 ‘작인들에게 고리대금을 하여 살아 나간다’는 데서, 종가에 대한 선망을 드러낸다.

8 [A],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노래’와 ‘가사’의 융합이 가져온 결과를 보여 준 것이다.
- ② [A]는 ‘노래’와 ‘이야기’가 결합되었을 때 나타나는 단점을 설명한 것이다.
- ③ [B]는 시인의 ‘말’에 ‘이야기’가 직접 연결된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 ④ [B]는 ‘노래’의 성격이 약화된 ‘말’에 ‘노래’가 주는 감동을 불어넣는 상황을 보여 준 것이다.
- ⑤ [A]는 ‘이야기’의 도입이 지닌 한계를, [B]는 ‘노래’의 회복이 지닌 의미를 설명한 것이다.

MEMO

9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찡찡 울리던 옛날'과 '달걀귀신이 응용거린다는 마을의 풍설'을 통해 '종가'에 대한 인상을 감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② (가)는 '돌담으로 튼튼히 가려 놓은 집'과 '검은 기와집'을 통해 '종가'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나)는 '그러나'라는 시상 전환 표지를 활용하여 '노래'만으로는 화자가 바라는 '시' 창작이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 ④ (나)는 '처용'이 부른 '노래'와 '처용'에 대한 '이야기'의 성격을 비교하여 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 ⑤ (가)는 '지금도'를 통해 '종가'의 불변성을, (나)는 '이제'를 통해 '시'의 영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10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에서 화자는 '종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종가와 연관된 사람들의 상처를 드러내고, 이러한 종가의 이야기가 현재의 상황과 연결되도록 현재 시제를 주로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나)에서 화자는 '시'가 '노래'의 성격을 되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감정의 과잉으로 상처가 오히려 깊어지기도 하는 노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야기'가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는 종가에 대한 화자의 경험을 이야기한 산문 형식의 시이고, (나)는 「종가」와 같은, 이야기가 두드러진 시를 짓는 까닭을 제시한 시론 성격의 시이다.

- ① (가)는 종가 구성원들의 행동을 현재 시제로 생동감 있게 표현함으로써 종가의 이야기와 현실이 연관되도록 서술하고 있군.
- ② (가)는 '동네 백성들'이 받은 상처를 보여 줌으로써 종가의 부정적 측면을 드러내려는 화자의 의도를 부각하고 있군.
- ③ (나)는 상처가 노래에 쉽게 덧난다고 말함으로써 시에서 노래의 성격이 분리된 결과를 보여 주고 있군.
- ④ (나)는 '뇌수'와 '심장'의 결합을 희망한다고 말함으로써 시에 이야기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담아내고 있군.
- ⑤ (가)는 종가에 얽힌 경험과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나)는 시 창작에서 이야기의 활용이 지니는 의미를 제시하고 있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19학년도 6월 평가원 )

M E M O

(가)

<sup>1</sup>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향시 어  
두움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동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  
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sup>2</sup>저어 서로 응시하는 짙짙한 풍경. <sup>3</sup>아름다운 풍토는 이미 고구려 같은  
정신도 신라 같은 이야기도 없는가. <sup>4</sup>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인  
데 ..... <sup>5</sup>우리 무엇에 불안한 얼굴의 의미는 여기에 있었던가.

<sup>6</sup>모든 유혈(流血)은 꿈같이 가고 지금도 나무 하나 안심하고 서 있지 못  
할 광장. <sup>7</sup>아직도 정맥은 끊어진 채 휴식인가 야위어 가는 이야기뿐인가.

<sup>8</sup>언제 한 번은 불고야 말 독사의 혀같이 징그러운 바람이여. <sup>9</sup>너도 이미  
아는 모진 겨울살이를 또 한 번 겪으라는가 아무런 죄도 없이 피어난 꽃  
은 시방의 자리에서 얼마를 더 살아야 하는가 아름다운 길은 이뿐인가.

<sup>10</sup>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향시 어  
두움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동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  
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 박봉우, 「휴전선」 -

(나)

- <sup>1</sup>득음은 못하고, 그저 시골장이나 떠돌던
- <sup>2</sup>소리꾼이 있었다, 신명 한 가락에
- <sup>3</sup>막걸리 한 사발이면 그만이던 흰 두루마기의 그 사내
- <sup>4</sup>꿈속에서도 폭포 물줄기로 내리치는
- <sup>5</sup>한 대목 절창을 찾아 떠돌더니
- <sup>6</sup>오늘은, 왓새\* 울음 되어 우항산 솔밭을 다 적시고 [A]
- <sup>7</sup>우포늪 둔치, 그 눈부신 봄빛 위에 자운영 꽃불 질러 놓는다
- <sup>8</sup>살아서는 근본마저 알 길 없던 험험단신 [B]
- <sup>9</sup>텅텅한 얼굴에 달빛 같은 슬픔이 영켜 수염을 흔들곤 했다
- <sup>10</sup>늙은 고수라도 만나면
- <sup>11</sup>어깨 들썩 산 하나를 흔들었다
- <sup>12</sup>필생 동안 그가 찾아 헤맸던 소리가 [C]
- <sup>13</sup>적막한 늙 뒷산 솔바람 맑은 가락 속에 있었던가
- <sup>14</sup>소목 장재 토평마을 양파들이 시퍼런 물살 몰아칠 때
- <sup>15</sup>일제히 깃을 치며 동편제\* 넘어가는 [D]
- <sup>16</sup>저 왓새들



MEMO

17완창 한 판 잘 끝냈다고 하늘 선회하는  
18그 소리꾼 영혼의 심연이  
19우포늪 꽃잔치를 자지러지도록 무르익힌다

┌  
[E]  
└

- 배한봉, 「우포늪 약새」 -

- \* 약새 : 왜가리의 별명.
- \* 동편제 : 판소리의 한 유파.

(다)

1그 바위를 가리켜 어느 건방진 옛사람이 오심암(吾心岩)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다 한다. 2그보다도 조금 겸손한 누구는 세심암(洗心岩)이라고 불렀다 한다.

3기운차게 일어난 산발이 이곳에 이르러 오심암의 절경을 남기기 위하여 한 동근 골짜기를 이루어 놓고 다시 다물어졌다.

4깊은 단풍 빛에 붉게 누렇게 물든 검은 절경의 성장(盛裝), 그것을 선을 두른 동해보다도 더 푸른 하늘빛, 천사가 흘러고 간 형깊인 듯 봉우리 위에 가볍게 비낀 백옥보다도 흰 얇은 구름 조각.

5이것은 분명히 자연이 흘러 놓은 예술의 극치다. 6그러나 겸손한 자연은 그의 귀한 예술이 홍진(紅塵)에 물들 것을 염려하여 그것을 이 깊은 산골짜기에 감추었던 것인가 보다.

7어귀까지 ‘버스’를 불러오고 이곳까지 2등 도로를 끌어 오는 것은 본래부터 그의 뜻은 아니었을 게다. 8오직 사람만이 장하지도 아니한 그들의 예술을 천하에 뽐낼 기회만 엿보나 보다.

9둘러보건대 이 골짜기에는 일찍이 먼지를 품은 미친 바람과 같은 것은 지나가 본 일이 아주 없었나 보아서 아득히 쳐다보이는 높은 하늘 아래 티끌을 품은 듯한 아무것도 없다. 10잠깐 내 자신을 굽어보니 허영계 먼지 낀 의복, 그 밑에 숨은 먼지 낀 내 몸뚱어리, 그리고 또 그 속에 얽드린 먼지 낀 내 마음, 나는 그 텃기 모르는 순결한 자연 속에 쓰레기처럼 동떨어진 내 몸의 더러움을 새삼스럽게 부끄러워하였다.

<중략>

11차디찬 바위 위에 신발을 벗고 모자를 던지고 외투를 벗어 팽개치고 반듯이 누워서 눈을 감으니 인생도 예술도 다 어디로 사라지고 오직 끝없는 망각이 내 마음을 아니 우주를 채우며 온다. 12그러나 몸을 식히며 스며드는 찬기는 어느새 거리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들의 위치를 깨닫게 한다. 13우리는 채 씻기지 않은 마음을 거두어 가지고 잠시나마 정을 들인 오심암을 두 번 세 번 돌아다보면서 간 길을 다시 내려오기 시작하였다. 14좋은 벗 떠나기란 싫은 것처럼, 좋은 자연에도 석별의 정은 마찬가지로 보다. 15또한 좋은 음식을 만났을 때 벗을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떠나고 싶지 않은 자연을 앞에 두고는 멀리 있는 벗들이 갑자기 그리울다. 16나는 마음속으로 어느새 오심암에게 무언(無言)의 약속을 주어 버렸다.



17 '내년에는 벼를 데리고 또 찾아오마'고

- 김기림, 「주을온천행」 -

M E M O

1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의 삶과 공간의 의미를 연결 지어 주제 의식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② 갈등과 대립이 없는 화합의 세계를 보여 줌으로써 희망적인 미래를 예견하고 있다.
- ③ 역사적 상황을 직시함으로써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참여 의식을 표방하고 있다.
- ④ 자연이 인간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함으로써 사물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특정한 장소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의 교만한 태도에 대한 비판을 이끌어 내고 있다.

12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설의적 표현으로 현실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청각의 시각화를 통해 소재의 생동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③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가)는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화자의 인식을 자연물에 투영하여 시적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MEMO

13 (가)와 (다)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천둥 같은 화산'은 신뢰를 잃은 상황이 초래한 불안한 현실을, (다)의 '검은 절경'은 아름다움을 잃은 풍경에서 느껴지는 암울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의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하나로 이어진 세계를, (다)의 '아득히 쳐다보이는 높은 하늘 아래'는 흠결 없는 세계를 그려 내고 있다.
- ③ (가)의 끊어진 '정맥'은 '유험'을 이겨낸 삶의 의지를, (다)의 엄습하는 '찬기'는 정든 곳을 떠나야 하는 절망감을 환기하고 있다.
- ④ (가)의 '징그러운 바람'은 미래에 닥칠지 모를 모진 상황을, (다)의 '미친 바람'은 삶에서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를 상징하고 있다.
- ⑤ (가)의 '꽃은 죄 없이 '요런 자세'로 삶에 순응하는 존재를, (다)의 '바위'는 지나온 과거를 '망각'하며 삶을 회의하는 존재를 표현하고 있다.

14 <보기>를 참고하여 [A]~[E]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시의 화자는 '우포늪'에서 왁새 울음소리를 들으며, 득음을 못한 채 생을 마감했던 한 '소리꾼'을 상상적으로 떠올리고 있다. 화자는 왁새 울음소리에서 고단하고 외로웠던 소리꾼이 평생을 추구했던 절창을 연상함으로써, 우포늪의 생명력이 소리꾼의 영혼을 절창으로 이끌었음을 표현하고자 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세계에서 창조되는 예술의 경지와 우포늪의 아름다움을 조화롭게 형상화한 것이다.

- ① [A] : 화자는 왁새 울음소리와 우포늪의 풍경을 연결 지어 소리꾼이 추구했던 절창을 상상적으로 떠올리고 있다.
- ② [B] : 득음의 경지를 찾아 떠돌았던 소리꾼의 얼굴에 묻어나는 삶의 비애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C] : 소리꾼이 평생 추구했던 절창을 우포늪에서 찾아낸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D] : 화자가 상상적으로 떠올린 세계를 우포늪 일대의 현실적 공간과 결부하고 있다.
- ⑤ [E] : 날아가는 왁새와 완창을 한 소리꾼을 대비하여 자연과 인간이 통합된 예술의 형상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15 <보기>는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생들이 (다)를 감상한 내용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M E M O

보기

**선생님** : 수필은 글쓴이의 성찰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반성적이고, 깨달음을 전한다는 점에서 교훈적이며, 인생과 사회에 대한 인식과 판단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특징을 갖습니다. 글쓴이의 발상과 통찰은 제재에서 새로운 의미를 이끌어 내고, 글쓴이의 문체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 활용되지요. 그러면 이 작품에 드러난 수필의 특징을 확인해 봅시다.

**학생 1** : 가을의 풍경을 효과적으로 그려 내기 위해 감각적인 문체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

**학생 2** : '예술의 극치'와 '장하지도 아니한' 예술을 대비하는 데에서, 인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엿볼 수 있어요. ....㉡

**학생 3** : '오심암'의 경치에서 '겸손한 자연', '순결한 자연'을 이끌어 내는 데에서, 대상의 새로운 의미에 대한 통찰을 엿볼 수 있어요. ....㉢

**학생 4** : 인간의 삶에서 자연이 '티끌'처럼 작아 보인다고 한다는 점에서, 사색을 통해 교훈을 얻는 수필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

**학생 5** : '먼지 낀 의복'을 보고 '몸뚱어리'와 '마음'에 대한 부끄러움을 떠올린 데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반성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회 차**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

(가)

- 1 무너지는 꽃 이파리처럼
- 2 휘날려 발 아래 깔리는
- 3 서른 나문 해야
  
- 4 구름같이 피려던 뜻은 **날로** 굳어
- 5 한 금 두 금 곱다랗게 감기는 연륜(年輪)
  
- 6 갈매기처럼 꼬리 떨며
- 7 산호 핀 바다 바다에 내려앉은 섬으로 가자
  
- 8 비취빛 하늘 아래 피는 꽃은 맑기도 하리라
- 9 무너질 적에는 눈빛 파도에 적시우리
  
- 10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은 다음
- 11 주름 잡히는 연륜마저 끊어버리고
- 12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 김기림, 「연륜」 -

(나)

- 1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 2 **한꺼번에** 싸게 사서
- 3 **마구** 쓰다가
- 4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 5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 6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 7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며
- 8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 9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 10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 11 시우쇠처럼 나를 달구고
- 12 모루 위에서 버리고
- 13 솥돌에 갈아
- 14 시퍼런 무쇠 낫으로 바꾸고 싶다
- 15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 낸
- 16 꼬부랑 호미가 되어



MEMO

- 17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 18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 19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 20 **온통** 부끄러워지고
- 21 직지사 해우소
- 22 어둑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 23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 24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 25 어딘가 걸려 있고 싶다

- 김광규, 「대장간의 유혹」 -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과정을 나타내는 시어들을 나열하여 시간의 급박한 흐름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자연물에 빗대어 화자의 움직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색채어를 활용하여 공간적 배경이 만들어 내는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하강의 이미지가 담긴 시어를 활용하여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표면에 드러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2 (가), (나)의 시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 ‘열렬히’는 화자가 추구하는 삶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표방한다.
- ② (나)에서 ‘한꺼번에’와 ‘하나씩’의 대조는 개별적인 존재의 고유성을 부각한다.
- ③ (나)에서 ‘온통’은 화자의 성찰적 시선이 자신의 삶 전반에 걸쳐 있음을 부각한다.
- ④ (가)에서 ‘날로’는 부정적 상황의 지속적인 심화를, (나)에서 ‘당장’은 당면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절박감을 강조한다.
- ⑤ (가)에서 ‘또한’은 긍정적인 존재와 화자의 동질성을, (나)에서 ‘마구’는 부정적으로 취급되는 대상과 화자 간의 차별성을 부각한다.

MEMO

3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시인은 결핍을 느끼는 상황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삶을 성찰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연륜」은 축적된 인생 경험에서, 「대장간의 유혹」은 현대인이 추구하는 편리함에서 결핍을 발견한 화자를 통해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재해석된다. 두 작품은 결핍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구심점으로 삼아 시상을 전개한다.

- ① (가)에서 '서른 나문 해'를 '초라한 경력'으로 표현한 것은, 화자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변변치 않은 경험으로 재해석한 것이겠군.
- ② (가)에서 '불꽃'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표현한 것은, '주름 잡히는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끊을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의미로 재해석한 것이겠군.
- ③ (나)에서 지금은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고 표현한 것은, 일상에서 결핍된 가치를 찾고자 하는 화자의 열망을 공간에 투영한 것이겠군.
- ④ (나)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걸려 있고 싶다'고 표현한 것은,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표상하는 사물의 상태가 되고 싶다고 진솔함으로써 결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겠군.
- ⑤ (가)에서 '육지'를 지나간 시간을 막아 둘 공간으로, (나)에서 '버스'를 벗어나고 싶은 공간으로 표현한 것은, '육지'와 '버스'를 화자가 결핍을 느끼는 공간으로 재해석한 것이겠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23학년도 6월 평가원 )

M E M O

(가)

<sup>1</sup>향아 너의 고운 얼굴 조석으로 우물가에 비취이던 오래지 않은 옛날로  
가자

<sup>2</sup>수수럭거리는 수수발 사이 걸썩스런 웃음들 들려 나오며 호미와 바구  
니를 든 환한 얼굴 그림처럼 나타나던 석양……

<sup>3</sup>구슬처럼 흘러가는 냇물가 맨발을 담그고 늘어앉아 빨래들을 두드리던  
전설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sup>4</sup>눈동자를 보이라 향아 회올리는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에 넋 빼앗기  
지 말고

<sup>5</sup>철따라 푸짐히 두레를 먹던 ㉠ 정자나무 마을로 돌아가자 미끈땡한 **기  
생층의 생리**와 허식에 인이 배기기 전으로 눈빛 아침처럼 빛나던 우리들  
의 고향 병들지 않은 젊음으로 찾아 가자구나

<sup>6</sup>향아 허물어질까 두렵노라 얼굴 생김새 맞지 않는 **발돋움의 흥낼**랑 그  
만 내자

<sup>7</sup>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 위하여 맨발을 벗고 콩바심하던 **차  
라리 그 미개지**에로 가자 달이 뜨는 명절밤 비단치마를 나부끼며 **떼지어  
춤추던** 전설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냇물 굽이치는 싱싱한 마음밭으로 돌  
아가자.

- 신동엽, 「향아」-

(나)

<sup>1</sup>이사온 그는 이상한 사람이었다

<sup>2</sup>그의 집 담장들은 모두 빛나는 유리들로 세워졌다

<sup>3</sup>골목에서 놀고 있는 부주의한 아이들이

<sup>4</sup>잠깐의 실수 때문에

<sup>5</sup>풍성한 햇빛을 복사해내는

<sup>6</sup>그 유리 담장을 박살내곤 했다

<sup>7</sup>그러나 애들아, 상관없다

<sup>8</sup>우리는 또 갈아 끼우면 되지

<sup>9</sup>마음껏 이 골목에서 놀렴

<sup>10</sup>우리를 깬 아이는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sup>11</sup>이상한 표정을 짓던 다른 아이들은

MEMO

<sup>12</sup>아이들답게 곧 즐거워했다

<sup>13</sup>견고한 송판으로 담을 쌓으면 어떨까

<sup>14</sup>주장하는 아이는, 그 아름다운

<sup>15</sup>골목에서 즉시 추방되었다

<sup>16</sup>우리 담장은 매일같이 깨어졌다

<sup>17</sup>필요한 시일이 지난 후, 동네의 모든 아이들이

<sup>18</sup>충실한 그의 부하가 되었다

<sup>19</sup>어느 날 그가 우리 담장을 떼어냈을 때, ㉠그 골목은

<sup>20</sup>가장 햇빛이 안 드는 곳임이

<sup>21</sup>판명되었다, 일렬로 선 아이들은

<sup>22</sup>묵묵히 벽돌을 날랐다

- 기형도, 「전문가」-

4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과거를 회상하며 현실을 관망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상징성을 띤 사건의 전개를 통해 주제를 암시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상상 세계의 경이로움을 나타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동일한 시구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 ⑤ (가)는 위로하는 어조로, (나)는 충고하는 어조로 시적 청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5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향'에게 귀환이 금지된 공간이고, ㉡은 '아이들'에게 이탈이 금지된 공간이다.
- ② ㉠은 '향'이 자기반성을 수행하는 공간이고, ㉡은 '아이들'이 '그'의 요청을 수행하는 공간이다.
- ③ ㉠은 '향'이 본성을 찾아가는 낯선 공간이고, ㉡은 '아이들'이 개성을 박탈당한 상실의 공간이다.
- ④ ㉠은 '향'의 노동과 놀이가 공존하던 공간이고, ㉡은 '아이들'의 놀이가 사라지고 노동만 남은 공간이다.
- ⑤ ㉠은 '향'과 화자의 우호적 관계가 드러나는 공간이고, ㉡은 '아이들'과 '그'의 상생 관계가 드러나는 공간이다.



6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M E M O

**보기**

(가)와 (나)는 모두 부정적 현실을 비판한 작품이다. (가)는 물질문명의 허위와 병폐에 물들어 가는 공동체가 농경 문화의 전통에 바탕을 두고 건강한 생명력과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작가 의식을 담고 있다. (나)는 환영(幻影)을 통해 대중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대중을 획일적으로 길들이는 권력의 기만적 통치술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고 있다.

- ① (가)에서 ‘차라리 그 미개지에도 가자’라는 화자의 권유는 공동체의 타전을 확장하여 순수성을 지켜 나가려는 의식을 보여 주는군.
- ② (나)에서 골목이 ‘가장 햇빛이 안 드는 곳’으로 판명되었다는 것은 ‘유리 담장’이 대중을 기만하는 환영의 장치였음을 보여 주는군.
- ③ (가)에서 ‘기생충의 생리’는 자족적인 농경 문화 전통에 반하는 문명의 병폐를, (나)에서 ‘주장하는 아이’의 추방은 획일적으로 통제된 사회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 ④ (가)에서 ‘밭돋움의 흥내’를 낸다는 것은 물질문명에 물들어 가는 상황을, (나)에서 ‘곧 즐거워했다’는 것은 권력의 술수에 대중이 길들여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 주는군.
- ⑤ (가)에서 ‘떼지어 춤추던’ 모습은 농경 문화 공동체의 건강한 생명력을, (나)에서 ‘일렬로’, ‘묵묵히’ 벽돌을 나르는 모습은 권력에 종속된 대중의 형상을 보여 주는군.



MEMO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22학년도 수능 )

(가)

1구겨진 하늘은 묵은 애기책을 편 듯  
2돌담 울이 고성같이 둘러싼 산기슭  
3박쥐 나래 밑에 황혼이 묻혀 오면  
4초가 집집마다 **호롱불**이 켜지고  
5고향을 그린 **묵화(墨畵)**한 폭 종이 쳐.

[A]

6떡엄 떡엄 보이는 그림 조각은  
7앞밭에 보리밭에 말매나물 캐러 간  
8가시내는 가시내와 중달새 소리에 반해

[B]

9빈 바구니 차고 오긴 너무도 부끄러워  
10술레짠 두 뺨 위에 모매꽃이 피었고.

11그넷줄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더니  
12앞내강에 씨레나무 밀려 나리면  
13젊은이는 젊은이와 뗏목을 타고  
14돈 벌러 향구로 흘러간 몇 달에  
15서릿발 앞 쳐도 못 오면 바람이 분다.

[C]

16피로 가꾼 이삭이 참새로 날아가고  
17꿈처럼 어린 놈이 북극을 꿈꾸는데  
18늙은이는 늙은이와 싸우는 입김도

[D]

19벽에 서려 성에 끼는 한겨울 밤은  
20동리(洞里)의 밀고자인 강물조차 얼붙는다.

[E]

- 이육사, 「초가」 -

(나)

1오늘, **목창**을 열어,  
2**장거릴**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은 뜻은  
3사람은 맨날 변해 쌓지만  
4태고로부터 푸르러 온 산이 아니냐.  
5고요하고 너그러워 수(壽)하는 데다가  
6보옥을 갖고도 자랑 앓는 겸허한 산.  
7마음이 본시 산을 사랑해  
8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9그 품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가 또 묻히리니



MEMO

<sup>10</sup>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sup>11</sup>아아라히 뻗쳐 있어 다리 놓는 산.  
<sup>12</sup>네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아  
<sup>13</sup>미역취 한 이파리 상긋한 산 내음새  
<sup>14</sup>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sup>15</sup>꿈같은 산 정기(精氣)를 그리며 산다.

- 김관식, 「거산호 2」 -

(다)

<sup>1</sup>온갖 꽃들이 요란스럽게 일제히 터트려져 광채가 찬란하다. <sup>2</sup>이때에 바람이 살짝 불어오면 향기가 코를 스친다. <sup>3</sup>때마침 꿀 베는 자가 낮을 가지고 와서 손 가는 대로 베어 내는데, 아쉬워 돌아보거나 거리끼는 마음도 없다. 나는 이에 한숨을 쉬며 탄식하여 말하였다.

<sup>4</sup>“땅이 낳고 하늘이 기르느바, 만물이 무성히 자라며 모두가 광대한 은택을 입는구나. <sup>5</sup>이에 따스한 바람이 불어 갖가지 형상을 아로새기고 단비를 내려 온 둘레를 물들이니, 천기(天機)를 함께 타고나 형체를 부여받음에 각기 그 자질에 따라 고운 자태를 드러낸다. <sup>6</sup>모란의 진귀하고 귀중함을 해당화의 곱고 아름다움에 견주어 보면, 비록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으나, 어찌 **공교함과 졸렬함**에 다른 해아림이 있었겠는가?

(중략)

<sup>7</sup>그런데도 **귀함**이 저와 같고 **친함**이 이와 같아, 어떤 것은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에서** 눈앞의 봄바람을 지키고, 어떤 것은 짧은 낮을 든 어리석은 종의 손아귀에서 가을 서리처럼 변한다. <sup>8</sup>이 어찌 된 일인가? <sup>9</sup>뜨락은 사람 가까이 있고 교외의 땅은 멀리 막혀 있어 가까운 것은 친하기 쉽고 멀리 있는 것은 저어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sup>10</sup>아니면 **요황과 위자\***는 성씨가 존엄한데 범상한 화초는 이름이 없으며, 성씨가 존엄한 것은 곱게 빛나는데 이름 없는 것들은 먼 데서 이주해 온 백성 같은 존재이기 때문인가? <sup>11</sup>그도 아니면 뿌리가 깊은 것은 종족이 번성한데 뻣뻣이 늘어선 것들은 가늘고 작으며, 높고 큰 것은 높은 자리에 있고 가늘고 작은 것들은 들판에 있기 때문인가?

<sup>12</sup>아! 낳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으나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인간에 달려 있다. <sup>13</sup>하늘은 사사로움이 없기에 그 **조화(造化)가 균일**하지만, 인간은 널리 베풀지 못하므로 **소원함**도 있고 **친함**도 있는 것이다. <sup>14</sup>하늘이 이미 낳아 주었는데 또 어찌 사람이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지 못하게 한다고 원망하겠는가? <sup>15</sup>나에게는 비록 감정이 있지만 풀에는 감정이 없으니, 그것이 소의 목구멍을 채우는 것과 **나비**로 하여금 다투어 찾도록 하는 것을 어찌 달리 보겠는가?”

- 이옥, 「담초(談艸)」 -

\* 요황과 위자 : 모란의 진귀한 품종을 일컫는 말.

MEMO

7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조화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나)에서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앞날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다)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살펴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태도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 (다)에서는 모두 자연물이 쇠락하는 과정을 제시하여 인생에 대한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 (나), (다)에서는 모두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장소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이끌어 내고 있다.

8 <보기>를 참고할 때,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육사는 「초가」를 발표하면서 ‘유폐된 지역에서’라고 창작 장소를 밝혔다. 이곳에서 그는 오래전 떠난 고향을 떠올려 시로 형상화했다. 계절의 흐름에 따라 낭만적인 봄에서 비극적인 겨울로 시상을 전개하여 악화되어 가는 일제 강점기의 현실을 묘사했다.

- ① [A] : 돌담 울에 둘러싸인 산기슭을 묘사하여 화자가 고향을 회상하는 장소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 ② [B] : 봄날의 보리밭 풍경을 제시하여 화자가 떠올리는 고향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③ [C] : 고향 사람들이 기대하던 앞내강 정경을 묘사하여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진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④ [D] : 풍족한 결실을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이 처한 현실 너머의 세계를 꿈꾸는 소년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E] : 강물이 얼어붙는 삭막한 겨울의 이미지로 일제 강점기의 가혹한 현실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MEMO

9 '산'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산'을 수시로 변하는 인간과 달리 태고로부터 본질을 잃지 않는 불변성을 지닌 것으로 인식하는군.
- ② '산'을 인간의 덕성을 표면화하는 데 집중하는 적극적 의지를 지닌 존재로 여기는군.
- ③ '산'을 삶과 죽음을 이어 줌으로써 죽음 이후에도 함께할 대상으로 여기는군.
- ④ '산'을 근원적 고향으로 인식함으로써 그리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군.
- ⑤ '산'을 현재 함께하는 존재로 여기면서도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존재로 인식하는군.

10 (다)의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꽃의 '공교함과 졸렬함'을 판단할 때는 꽃의 형체보다는 쓰임새에 기준을 두어야 함을 강조한다.
- ② 화초의 '귀함'과 '천함'에 대한 평가는 그 본성에 맞게 이름이 부여되었으나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 ③ 풀을 '영화롭게' 만드는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늘이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드러낸다.
- ④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풀은 '조화가 균일'한 존재로서 가치의 우열을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⑤ 인간의 감정에는 '소원함'과 '친함'이 모두 있으므로 사사로움을 넘어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MEMO

11 **목화와 북창을 중심으로 (가)와 (나)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목화’와 ‘박쥐 나래’의 이미지를 연결하여 고향의 어두운 분위기를, (나)에서는 ‘북창’에서 바라본 산의 ‘폼’에 주목하여 산이 주는 아늑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 ② (가)에서 ‘목화’는 ‘황혼’이 상징하는 현실적 상황에, (나)에서 ‘북창’은 ‘저승의 밤’이 의미하는 절망적 상황에 대응된다.
- ③ (가)에서 ‘목화’에 ‘좀이 쳐’라고 한 것은 화자가 고향에 대해 느끼는 세월의 깊이를, (나)에서 ‘북창’을 ‘오늘’ 열었다고 한 것은 산을 대하는 화자의 인식이 변화된 시점을 드러낸다.
- ④ (가)에서 ‘목화’를 ‘그림 조각’이라고 한 것은 고향의 분절된 이미지를, (나)에서 ‘북창’을 ‘열어’ 산을 보고 있다는 것은 선망하는 세계와 분리된 이미지를 나타낸다.
- ⑤ (가)에서는 ‘목화’에 그려진 ‘모매꽃’에 부끄러움의 정서를, (나)에서는 ‘북창’을 통해 본 ‘보옥’에 안타까움의 정서를 담아낸다.

12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문학적 표현에는 표현 대상을 그와 연관된 다른 관념이나 사물로 대신하여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여기에는 사물의 속성으로 실체를 대신하거나 대상의 한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방법들은 서로 혼재되기도 하면서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미지와 분위기를 환기한다.

- ① (가)에서 저녁이 오는 시간을 그와 연관된 사물인 ‘호롱불’이 켜진다는 것으로 나타냄으로써, 산골 마을의 저녁 풍경을 시각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 ② (가)에서 고향에 머무르지 못하고 객지로 떠나는 현실을 ‘뗏목’을 타고 흘러가는 것과 연관 지어 나타냄으로써, 삶의 불안정함을 구체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 ③ (나)에서 세속적인 삶의 공간 전체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장거리’의 속성을 활용하여 나타냄으로써, 인심이 쉽게 변하는 세속 공간의 분위기를 환기하는군.
- ④ (다)에서 귀한 대우를 받는 삶을 그러한 속성을 가진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으로 나타냄으로써, 인간과 가까운 공간의 적막한 분위기를 환기하는군.
- ⑤ (다)에서 풀의 가치를 ‘소’와 ‘나비’의 행위와 연관 지어 나타냄으로써, 하찮게 취급되는 풀과 귀하게 여겨지는 풀의 차이를 구체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 \* 3 회 차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23학년도 6월 평가원 )

[앞부분의 줄거리] 해방 직후, 미군 소위의 통역을 맡아 부정 축재를 일삼던 방삼복은 고향에서 온 백 주사를 집으로 초대한다.

1“서 주사가 이거 두구 갑니다.”

2들고 올라온 각봉투 한 장을 남편에게 건네어 준다.

3“어디?”

4그러면서 받아 봉을 뜯는다. 소절수 한 장이 나온다. 액면 만 원짜리다.

5미스터 방은 성을 벌컥 내면서

6“겨우 돈 만 원야?”

7하고 소절수를 다다미 바닥에다 획 내던진다.

8“내가 알우?”

9“우랄질 자식 어디 보자. 그래 전, 걸 십만 원에 불하 맡아다, 백만 원 하난 냉겨 먹을 테문서, 그래 겨우 돈 만 원야? 엠병힐 자식, ①내가 엠펜\*한테 말 한마디문, 전 어느 지경 같지 모를 줄 모르구서.”

10“정중으루 가져와요?”

11“내 말 한마디에, 죽을 늪이 살아나구, 살 늪이 죽구 허는 줄은 모르구서. 흥, 이 자식 경 좀 쳐 보라……. 증중 따근허게 데와. 날두 산산허구 허니.”

12새로이 안주가 오고, 따끈한 정중으로 술이 몇 잔 더 오락가락하고 나서였다.

13백 주사는 마침내, **진작부터 버르던 이야기를** 꺼내었다.

14백 주사의 아들 ①백선봉은, 순사 임명장을 받아 취면서부터 시작하여 8·15 그 전날까지 칠 년 동안, 세 곳 주재소와 두 곳 경찰서를 전근하여 다니면서, 이백 석 추수의 토지와, 만 원짜리 저금통장과, 만 원어치가 넘는 옷이며 비단과, 역시 만 원어치가 넘는 여편네의 패물과를 장만하였다.

[A] 15남들은 주린 창자를 즐라멜 때 그의 광에는 옥 같은 정백미가 몇 가마니씩 쌓였고, 반년 일 년을 남들은 구경도 못 하는 고기와 생선 이 끼니마다 상에 오르지 않는 날이 없었다.

[B] 16××경찰서의 경제계 주임으로 있던 마지막 이 년 동안은 더욱더 호화판이었다. 178·15 그날 밤, **군중**이 그의 집을 습격하였을 때에 쏟아져 나온 물건이 쌀 말고도

18광목 여섯 필

19고무신 스물세 켤레

20지카다비 여덟 켤레



MEMO

<sup>21</sup>빨렛비누 세 귀짝

<sup>22</sup>양말 오십 타

<sup>23</sup>정종 열세 병

<sup>24</sup>설탕 한 부대

[C] 이렇게 **있었더라**다. 만 원어치 여편네의 패물과, 만 원 어치의 옷감 이며 비단과, 만 원짜리 저금통장은 고만두고 말이었다.

<sup>25</sup>물건 하나 없이 죄다 빼앗기고, 집과 세간은 조각도 못 쓰게 산산 다 부수고, 백선봉은 팔이 부러지고, 찹은 머리가 절반이나 뽑히고, 겨우겨우 목숨만 살아, 본집으로 도망해 왔다.

[D] <sup>26</sup>일번 고을에서는, 백 주사가, 자식이 그런 짓을 해서 산 토지를 가지고, **동네 사람**한테 거만히 굴고, 작인들한테 팔 할 가까운 도지를 받고, 고리대금을 하고 하였대서, 백선봉이 도망해 와 놓는 그날 밤, 그의 본집인 백 주사네 집을 습격하였다.

[E] <sup>27</sup>집과 세간 죄다 부수고, 백선봉이 보낸 통제 배급 물자 술한 것 죄다 빼앗기고, **가족**들은 죽을 매를 맞고, 백선봉은 처가로, 백 주사는 서울로 각기 피신하여 목숨만 우선 보전하였다.

<sup>28</sup>백 주사는 비싼 여관 밥을 사 먹으면서, 울적히 거리를 오락가락, 어떻게 하면 이 분풀이를 할까, ④ 어떻게 하면 빼앗긴 돈과 물건을 도로 다 찾을까 하고 궁리를 하는 것이나, 아무런 묘책도 없었다.

<sup>29</sup>그러자 오늘은 우연히 이 미스터 방을 만났다. <sup>30</sup>종로를 지향 없이 거니는데, 지나가던 자동차가 스르르 멈추면서, 서양 사람과 같이 댕던 신사 양반 하나가 내려서더니, 어찌다 눈이 마주치자

<sup>31</sup>“아, 백 주사 아니신가요?”

<sup>32</sup>하고 반기는 것이었다.

<sup>33</sup>자세히 보니, 무어 길바닥에서 신기료장수를 한다던 코빼뜰이 삼복이 가 분명하였다.

<sup>34</sup>“자네가, 저, 저, 방, 방…….”

<sup>35</sup>“네, 삼복입니다.”

<sup>36</sup>“아, 건데, 자네가…….”

<sup>37</sup>“히, 살 때가 댘답니다.”

<sup>38</sup>그러고는 ⑥ 내 집으로 갑시다, 하고 잡아끄는 대로 끌리어 온 것이었다.

<sup>39</sup>의표하며, 집하며, 식모에 침모에 계집 하인까지 부리면서 사는 것하며, 신수가 흰히 트여 가지고, 말도 제법 의젓하여진 것 같은 것이며, ③ 진소위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할 것인지.

<sup>40</sup>옛날의 영화가 꿈이 되고, 일조에 몰락하여 가뜩이나 초상집 개처럼 초라한 자기가, ② 또 한 번 어깨가 움츠러들을 느끼지 아니치 못하였다.

<sup>41</sup>그런 데다 이 녀석이, 언제 적 저라고 무엄스럽게 굴어, 심히 불쾌하였고, 그래서 ⑤ 엔간히 자리를 털고 일어설 생각이 몇 번이나 나지 아니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참았다.



MEMO

<sup>42</sup>보아하니 큰 세도를 부리는 것이 분명하였다. <sup>43</sup>잘만 하면 그 힘을 빌려, 분풀이와, 빼앗긴 재물을 도로 찾을 여망이 있을 듯 싶었다.

- 채만식, 「미스터 방」 -

\* 옴피(MP) : 미군 헌병.

1 윗글의 대화를 중심으로 '방삼복'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이 꾸미고 있는 일에 관심 없는 상대에게 자기 업무를 떠넘기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 ② 질문에 대꾸하지 않음으로써 상대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도록 거드름을 피우고 있다.
- ③ 눈앞에 없는 사람을 비난하고 위협함으로써 함께 있는 상대에게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차에서 내려 상대에게 먼저 알은체하며 동승자에게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고 있다.
- ⑤ 상대가 이름을 제대로 말하기 전에 말을 가로채 상대에 대한 열등감을 감추고 있다.

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에는 모두 외세에 기대어 사익을 추구하는 인물의 부정적 모습이 드러난다.
- ② ㉠과 ㉡에는 모두 외세와 이를 돕는 인물 간의 권력 관계가 일시적으로 역전된 모습이 드러난다.
- ③ ㉠과 ㉡에는 모두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인물이 몰락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 ④ ㉠에는 권력을 향한 인물의 조바심이, ㉡에는 권력에 의한 인물의 좌절감이 드러난다.
- ⑤ ㉠에는 자신의 권위에 대한 인물의 확신이, ㉡에는 추락한 권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인물의 자신감이 드러난다.



MEMO

3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 스스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강조하여 인물의 답답한 처지를 보여 준다.
- ② b : 방삼복의 제안에 영겁결에 따라가는 모습을 통해 인물이 얼떨떨한 상태임을 보여 준다.
- ③ c : 신수가 좋고 재력이 대단해 보이는 방삼복의 모습에 고향 사람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 ④ d : 자신의 처지를 방삼복과 비교하면서 주눅이 들었음을 보여준다.
- ⑤ e : 방삼복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그에 대한 반감이 뒤섞여 있음을 보여 준다.

4 <보기>를 참고하여 [A]~[E]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진작부터 버르던 이야기'는 백 주사가 자신과 가족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서술자는 그 '이야기'를 서술자의 시선뿐 아니라 여러 인물들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서술함으로써 독자와 작중 인물 간의 거리를 조절한다. 또한 세부 항목을 하나씩 나열하여 장면의 분위기를 고조하고 정서를 확장하는 서술 방법으로 독자에게 현장감을 전해 준다. 이때 독자는 백 주사와 그의 가족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비판적으로 보게 된다.

- ① [A] : 백선봉의 풍요로운 생활을 '남들'의 굶주린 생활과 비교하여 서술함으로써 독자가 그를 비판적으로 보게 하고 있군.
- ② [B] : 부정하게 모은 많은 물건들을 하나씩 나열하여 습격 당시 현장의 들뜬 분위기를 환기함으로써 '군중'의 놀람과 분노를 독자에게 전하려 하고 있군.
- ③ [C] : '있었더라'를 통해 누군가에게 들은 것처럼 전하면서도, 전하는 내용을 '군중'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독자가 '군중'의 입장에서 서도록 유도하고 있군.
- ④ [D] : '동네 사람'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백 주사의 만행을 서술함으로써 백 주사가 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처럼 독자가 느끼게 하고 있군.
- ⑤ [E] : 백 주사 '가족'의 몰락을 보여 주는 사건들을 백 주사의 시선으로 일관되게 초점화하여 그들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편에 선 독자가 통쾌함을 느끼게 하고 있군.

MEMO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

[앞부분의 줄거리] 나는 기범이 죽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 위해, 그가 살았던 구천동을 찾아간다. 기범의 행적을 잘 알고 있는 ‘임 씨’를 만나 사연을 듣기 전에, 일규의 장례식 후에 있었던 기범과의 과거 일을 회상한다.

1“네가 일규를 어떻게 아냐? 네간 게 뭘 안다구 감히 일규를 입에 올리냐?”

2기범은 순간 잔을 던지고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3너무나 돌연한 웃음이어서 나는 그때 꽤나 놀랐다. 4기범이 것처럼 미친 듯이 웃는 것을 나는 그날 처음 보았다.

5“그래, 네 말이 맞다. 나는 그놈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하지만 누가 그놈을 진심으로 사랑한 줄 아냐? 너희냐? 너희가 그놈을 사랑한 줄 아냐?”

6㉠나는 긴장했다. 그의 눈에서 번쩍이는 눈물을 보았기 때문이다.

7“너는 그놈이 아깝다구 했지만 나는 그놈이 죽어 세상 살맛이 없어졌다. 나는 살기가 **울적할 때마다** 허공에서 그놈의 쌍편을 찾았다. 나는 그놈을 통해서만 살아가는 **재미와 기쁨**을 느꼈다. 8그러나 그놈 역시 사정은 나하구 똑같았다. 나를 **발길로 걷어차지만** 그놈은 나를 잊은 적이 없다. 우리는 **서로 사랑했지만** 사랑하는 방법이 달랐을 뿐이다.”

(중략)

9“원래 그 사람은 도회지에서 살던 사람인데 왜 그때 도시를 버리구 **깊은 산골**을 찾았는지 모르겠군.”

10“처음엔 **저두** 많이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뭔가 세상에 죄를 짓구 숨어 사는 분이 아닌가 했습니다. ㉡더구나 이리루 들어오시자 머리를 깎구 수염까지 기르셨거든요. 11그러나 오래 뫼시구 살다 보니 저대루 차츰 납득이 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세상에 뭔가 실망을 느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12“본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소?”

13“과거 얘기는 좀체 안 하시는 편이었는데 언젠가는 내게 그 비슷한 말 씀을 하시더군요. 듣기에 따라서는 귀변 같지만 그분은 남하구 다른 ㉢**묘한 철학**을 지니구 계셨습니다.”

14“그걸 한번 들려줄 수 없소?”

15“그분은 세상이 어지럽구 더러울 때는 그것을 구하는 방법이 한 가지 밖에 없다구 하셨습니다. 세상을 좀 더 썩게 해서 더 이상 그 세상에 썩을 것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그걸 썩지 않게 고치려 구 했다가는 공연히 사람만 상하구 힘만 배루 든다는 것입니다. ㉣**‘모두 썩어라, 철저히 썩어라’**가 그분이 세상을 보는 이상한 눈입니다. 17제 나름의 어설픈 추측입니다만 그분은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을 믿



MEMO

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sup>18</sup>사람은 온갖 악행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송두리째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sup>19</sup>세상이 철저히 썩어서 더 썩을 것이 없게 되면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 언젠가는 스스로 자구책을 쓴다는 것입니다. <sup>20</sup>당신은 바로 그걸 믿으셨고, 이러한 자기 생각을 부정(不正)의 미학이라는 묘한 말루 부르시기두 했습니다.”

<sup>21</sup>나는 순간 가슴 한구석에 뭔가가 미미하게 부딪쳐 오는 진동을 느꼈다. 진동의 진상은 확실치 않지만, 나는 그것이 기범을 이해하는 어떤 열쇠가 아닌가 생각했다. <sup>22</sup>그의 온갖 기행과 궤변들이 어지러운 혼란 속에서 그제야 언뜻 한 가닥의 질서 위에 어렴풋이 늘어서는 것이었다.

<sup>23</sup>“헌데 세상에 대해 그런 생각을 지닌 사람이 갑자기 왜 세상을 등지구 이런 산속에 박혀 사는 거요?”

<sup>24</sup>“당신께서 아끼시던 친구 한 분이 갑자기 세상을 버리셨다구 하시더군요. 그때 아마 **충격을 받으시구** 이리루 들어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sup>25</sup>“누구랍니다, 그 친구가?”

<sup>26</sup>“이름은 말씀 안 하시구 그분을 언제나 ‘미련한 놈’이라구만 부르셨습니다.”

<sup>27</sup>오일규다. 나는 그제야 오일규의 장례식 후에 기범이 격렬하게 지껄인저 시끄럽던 요설들이 생각났다. <sup>28</sup>어쩌면 기범은 그때 이미 세상을 등질 결심을 했는지도 알 수 없다. <sup>29</sup>㊸ 아니 그는 그 얼마 후에 내 앞에서 정말로 깨끗하게 사라져 버린 것이다.

<sup>30</sup>“그래 그 친구가 죽은 후로 왜 세상을 등졌답니까?”

<sup>31</sup>“**세상 살 재미가 없어졌다구** 하시더군요. 아마 친구분을 꽤나 좋아하셨던 모양입니다. <sup>32</sup>그 미련한 놈이 죽어 버렸으니 자기도 앞으로는 미련하게 살밖에 없노라구 하셨습니다. <sup>33</sup>㊸ 당신이 미련하다고 말씀하는 건 우습게 들리시겠지만 착한 일을 뜻하시는 것이었습니다.”

<sup>34</sup>“그래서 이곳에 온 후 사람이 갑자기 달라진 거요?”

<sup>35</sup>“전 그분의 과거를 몰라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곳에 오신 후로는 그분은 거의 남을 위해서만 사셨습니다. 제가 생명을 구한 것두 순전히 그분의 덕입니다.”

<sup>36</sup>나는 다시 기범이 지껄었던 과거의 ㉞ 요설들이 생각난다. <sup>37</sup>세상을 항상 역(逆)으로만 바라보던 그의 난해성이 또 한 번 나를 혼란 속에 빠뜨린다. <sup>38</sup>그는 어쩌면 이 세상을 역순(逆順)과 역행(逆行)에 의해 누구보다 열심히 가장 솔직하게 살다 간 것 같다. <sup>39</sup>그에게 악과 선은 등과 배가 서로 맞붙은 동위(同位) 동질(同質)의 것이었는지도 알 수 없다. <sup>40</sup>그는 악과 선 중 아무것도 믿지 않았고 오직 믿은 것이라고는 세상에는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다는 사실뿐이었다. <sup>41</sup>그와 오일규가 맞부딪쳤을 때 오일규가 해체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sup>42</sup>그것은 가장 비열한 삶이 가장 올바른 삶을 해체시키는 역설적인 예인 것이다.

- 홍성원, 「무사와 악사」 -

MEMO

5 [A]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②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인물에 대한 평가를 관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③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체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배경을 실감나게 서술하고 있다.
- ④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회상을 중심으로 사건의 전개를 지연시키며 서술하고 있다.
- ⑤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을 묘사하여 인물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6 서사의 흐름을 고려하여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돌연한 웃음을 보이다가 눈물을 보이는 식으로 갑작스러운 감정 변화를 보인 데 대한 반응이다.
- ② ㉡ : 신원이 미심쩍다고 의심하는 상황에서 그 외모가 의심의 가중했다는 생각이 담긴 말이다.
- ③ ㉢ : 세상에 대한 관점이 상식적이지 않아 일반적으로는 수궁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드러낸 판단이다.
- ④ ㉣ : 약속을 곧바로 실행에 옮긴 행위에 대한 놀라움을 드러낸 표현이다.
- ⑤ ㉤ : 말의 표면적인 뜻과 달리 그 속에 숨은 뜻을 파악한 우호적인 해석이다.

7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 대한 '나'의 이해는 기범에 대한 '나'의 인식이 전환되는 데에 기여한다.
- ② a에 대한 얘기를 '나'가 꺼낸 것은 기범에 대한 '저'의 오해를 풀 목적에서이다.
- ③ '저'는 '나'가 기범에 대해 품은 의문이 b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 ④ '저'가 a로 인해 기범을 오해한다면, '나'는 b에 의해 기범을 이해한다.
- ⑤ '저'는 기범이 선행을 베풀며 보인 변화가 b에서 a로 변화된 과정과 일치함을 알고 있다.



8 <보기>의 관점에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MEMO

보기

사람들은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 가며 그와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를 통해 심리적 위안이나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 상대로부터 외면받거나 그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 이때 동일시의 상대를 부정하거나, 외면당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한다. 또는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 그 상황에서 아예 벗어나고자 한다. 무사와 약사 에서 ‘기범’이 보이는 기행과 귀면은 ‘일규’를 동일시하려는 상대로 의식한 데서 비롯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① 일규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세상 살 재미가 없어졌다’는 기범의 말이 사실이라면, 동일시하려던 상대의 부재가 가져오는 심리적 영향이 컸다는 것이겠군.
- ② 기범이 자신을 ‘발길로 걷어찼’던 일규로부터 외면받았다고 본다면, 일규와 ‘서로 사랑했’다고 믿는 기범의 진술은 외면당한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겠군.
- ③ ‘울적할 때마다’ 일규를 떠올리며 삶의 ‘재미와 기쁨’을 얻었다는 기범의 고백을 동일시의 결과로 이해한다면, 일규를 통해 기범이 심리적 위안을 얻었음을 추측할 수 있겠군.
- ④ 일규의 죽음이 기범이 도시를 떠나 ‘깊은 산골’에 정착한 계기였다고 본다면, 이는 동일시하려던 상대가 사라진 상황에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였겠군.
- ⑤ 기범이 일규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는 것이 동일시의 대상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이라면,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에 대한 기범의 믿음은 동일시를 통한 성취감에 해당하겠군.

## MEMO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그런 일이 있는 지 한 달쯤 지나니 내 겨드랑에 생긴 이변의 전모가 대강 드러났다. 2파마늘은 어김없이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솟구친다는 것. 3방에 있으면 쑤시고 밖에 나가면 씻은 듯하다는 것. 4까닭은 전혀 알 길이 없다는 것 등이었다. 5의사는 나에게 전혀 이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6그도 그럴 것이 그 시간에는 내 겨드랑은 멀쩡했기 때문이다. 7그때부터 나의 괴로움은 비롯되었다. 8파마늘은 전혀 불규칙한 사이를 두고 튀어나왔다. 9연이틀을 쑤시는가 하면 한 일주일 소식을 끊고 하는 것이었다. 10하루 이틀이지 이렇게 줄곧 밖에서 새운다는 것은 못 할 일이었다. 11나는 제집이면서 꼭 도적놈처럼 들의 어느 구석에 숨어서 밤을 지내야 했기 때문이다. 12그런 생활이 두 달째에 접어들었을 때 나는 건디다 못해서 담을 넘어서 밖으로 나가 보았다. 13그랬더니 참으로 이상한 일도 다 있었다. 14뜰에 나와 있어도 가끔 뜨끔거리고 손을 대 보면 미열이 있던 것이 거리를 거닐게 되면서는 아주 깨끗이 편한 상태가 되었다. 15이렇게 되면서 독자들은 곧 짐작이 갔겠지만, 문제가 생겼다. 16내가 의료적인 이유로 산책을 강요당하게 되는 시간이 행정상의 **통행 제한**의 시간과 우연하게도 겹치는 점이였다. 17고민했다. 18나는 부르주아의 썩은 미덕을 가지고 있었다. 19관청에서 정하는 규칙은 따라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2012시부터 4시까지 모든 **시민**은 밖에 나다니지 말기로 되어 있다. 21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규칙이니까 **페어플레이**를 지키는 사람이면 이것은 소형(小型)의 도덕률일 수밖에 없다. 22그러나 이 도덕률을 지키는 한 내 겨드랑은 요절이 나고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나는 겨드랑이에 파마늘 같은 것이 돋으면 밤거리를 몰래 산책하곤 한다. ‘나는 밤 산책 중 종종 다른 사람들과 마주친다.

23오늘은 경관을 만났다. 24나는 얼른 몸을 숨겼다. 25그는 부산하게 내 앞을 지나갔다. 26그 순간 나는 내가 레닌\*인 것을, 안중근인 것을, 김구인 것을, 아무튼 그런 인물임을 실감한 것이다. 27그가 지나간 다음에도 나는 ㉠은신처에서 나오지 않았다. 28공화국의 시민이 어찌하여 그런 엄청난 변모를 할 수 있었는지 모를 일이다. 29나는 정치적으로 백치나 다름 없는 감각을 가진 사람이다. 30위에서 레닌과 김구를 같은 유(類)에 놓은 것만 가지고도 알 만한 것이다. 31그런데 경관이 지나가는 순간에 내가 **혁명가**였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32혁명가라고 자꾸 하는 것이 안 좋으면 **간첩**이래도 좋다. 33나는 그 순간 분명히 간첩이었던 것이다. 34그런데 내가 간첩이 아닌 것은 역시 분명하였다. 35도적놈이래도 그렇다. 36나는 분명히 도적놈이었으나 분명히 도적놈은 아니었다. 37나는 아주 희미하게나마 혁명가, 간첩, 도적놈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알 만해지는 듯싶었다. 38이 맞을 못 잇는 것이구나 하고 나는 생각하였다. 39나도 물론 처음에는 치료라는 순전히 **공리적인** 이유로 이 산책에 나섰다. 40그러나 지금으로서



MEMO

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sup>41</sup>설사 내 겨드랑의 달같이 영원히 가 버린다 하더라도 이 금지된 산책을 그만둘 수 있을지는 심히 의심스럽다. <sup>42</sup>나의 산책의 성격은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누룩 반죽**처럼.

<sup>43</sup>기적(奇蹟). 기적. 경악. 공포. 웃음. <sup>44</sup>오늘 세상에도 희한한 일이 내 몸에 일어났다. <sup>45</sup>한강 근처를 산책하고 있는데 겨드랑이 간질간질해 왔다. <sup>46</sup>나는 속옷 사이로 더듬어 보았다. <sup>47</sup>털이 만져졌다. <sup>48</sup>그런데 닿임새가 심상치 않았다. <sup>49</sup>털이 괜히 뺏뺏하고 잘 묶여 있는 느낌이다. <sup>50</sup>빗자루처럼. <sup>51</sup>잘 만져 본다. <sup>52</sup>아무래도 보통이 아니다. <sup>53</sup>나는 ㉠ **바위**틈에 몸을 숨기고 옷을 벗었다. <sup>54</sup>속옷은 벗지 않고 들치고는 겨드랑을 들여다보았다. <sup>55</sup>나는 실소하고 말했다. <sup>56</sup>내 겨드랑에는 새끼 까마귀의 그것만 한 아주 치사하게 **쫘끄만 날개**가 돋아나 있었다. <sup>57</sup>다른 쪽 겨드랑을 또 들여다보았다. <sup>58</sup>나는 쿡 웃어 버렸다. <sup>59</sup>그쪽에도 장난감 몽당빗자루만 한 것이 달려 있는 것이었다. <sup>60</sup>날개가 보통 새들의 것과 다른 점이 그 깃털이 곱슬곱슬한 고수머리라는 것뿐이었다. <sup>61</sup>흠. <sup>62</sup>이놈이 나오려는 아픔이었구나 하고 나는 생각했다. <sup>63</sup>나는 그 날개를 움직이려고 해 보았다. <sup>64</sup>**꿇바퀴**가 말을 안 듣는 것처럼 그놈도 움직이지 않았다. <sup>65</sup>나는 참말 부끄러워졌다.

- 최인훈, 「크리스마스 캐럴 5」 -

\* 레닌 : 러시아의 혁명가.

9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의 순서를 뒤바꾸어 이야기의 인과 관계를 재구성하고 있다.
- ② 유사한 사건을 반복해서 제시하며 서술의 초점을 분산시키고 있다.
- ③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의 의미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 ④ 공간의 이동에 따른 인물의 경험을 다른 인물의 시선을 통해 서술하고 있다.
- ⑤ 사건에 대한 중심인물의 내적 반응을 중심인물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10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사’가 ‘나’의 증상을 진단하지 못한 것은 ‘나’의 증상이 ‘의사’ 앞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 ② ‘나’는 자신의 집에서 ‘도적놈’과 비슷한 방식으로 행동하곤 했다.
- ③ ‘뜰’에서의 ‘나’의 고통은 ‘방’에서보다는 덜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 ④ ‘나’는 ‘시민’이 정한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페어플레이’를 지키지 못하게 되어 고민한다.
- ⑤ ‘혁명가’와 ‘간첩’은 ‘나’가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자신과 비교해 보는 대상이다.



MEMO

11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정신적 안정을, ㉡은 신체적 회복을 위한 공간이다.
- ② ㉠은 윤리적인, ㉡은 정치적인 이유로 몸을 숨기는 공간이다.
- ③ ㉠은 ㉡과 달리, 타인의 출현으로 인해 몸을 감춘 공간이다.
- ④ ㉡은 ㉠과 달리,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다.
- ⑤ ㉠과 ㉡은 모두, 과거의 자신을 긍정하는 공간이다.

12 <보기>를 바탕으로 밑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크리스마스 캐럴 5」는 자유가 억압된 시대적 상황에서 자유의 가능성과 한계를 묻는 작품이다. ‘나’의 겨드랑이에 돋은 정체불명의 파마늘이 주는 통증은 자유에 대한 요구를, 그로 인한 밤 ‘산책’은 자유를 위한 실천을 의미한다. 작품은 처음에는 명료하지 않고 미약했던 자유를 향한 의지가 밤 산책을 거듭하면서 심화되는 모습과 함께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 ① ‘통행 제한’으로 인해 산책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은, 단순히 이동의 자유에 대한 억압만이 아니라 자유가 억압되는 시대적 상황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할 수 있겠군.
- ② ‘파마늘’이 돋을 때의 극심한 통증은, 자유가 그만큼 절박하게 요구되었던 상황을 보여 주는 동시에 자유를 얻기 위해 필요한 고통을 암시하기도 하겠군.
- ③ ‘공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산책이 점차 ‘누룩 반죽’처럼 ‘변질’되었다는 표현은, 자유의 필요성이 망각되어 자유를 위한 실천의 목적이 훼손되는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겠군.
- ④ 정체불명의 파마늘이 ‘날개’의 형상으로 바뀐 것은, 처음에는 명료하지 않았던 자유를 향한 의지가 산책을 통해 심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겠군.
- ⑤ ‘날개’가 ‘귓바퀴’ 같다는 점에 대해 ‘나’가 느낀 부끄러움은, 여러 차례의 산책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의지대로 실현하기 어려웠던 한계에 대한 인식으로 볼 수 있겠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2015학년도 수능 B형 )

MEMO

[앞부분의 줄거리] 화랑도를 숭상하는 ‘유종’과 당나라를 숭상하는 ‘금지’는 내심 서로 못마땅해한다. 이런 가운데 ‘금지’는 아들 ‘금성’과 ‘유종의 딸 ‘주만’과의 혼사를 진행하려 한다.

<sup>1</sup>설령 금성이가 출중한 재주와 인물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유종은 이 혼인을 거절할밖에 없었으리라. <sup>2</sup>첫째로 금지는 당학파의 우두머리가 아니냐. <sup>3</sup>나라를 좀먹게 하는 그들의 소위만 생각해도 뼈가 저리거든 그런 가문에 내 딸을 들여보내다니 될 뻔이나 한 수작인가. <sup>4</sup>도대체 당학\*이 무에 그리 좋은고, <sup>5</sup>그 나라의 바로 전 임금인 당 명황(唐明皇)만 하더라도 양귀비란 계집에게 미쳐서 정사를 다스리지 않은 탓에 필경 안녹산(安祿山)의 난을 빚어 내어 오랑캐의 말굽 아래 그네들의 자랑하는 장안이 쑥밭을 이루고 천자란 빈 이름뿐, 촉나라란 두메 속에 오륙 년을 갇히어 있지 않았는가. <sup>6</sup>금지가 당대 제일 문장이라고 추어올리는 이백이만 하더라도 제 임금이 성색에 빠져 헤어날 줄을 모르는 것을 죽음으로 간하지는 못할지언정 몇 잔 술에 감지덕지해서 그 요망한 계집을 칭찬하는 글을 지어 도리어 임금을 부추겼다 하니 우리네로는 꿈에라도 생각 밖이 아니냐. <sup>7</sup>㉠ 그네들의 한문이란 난신적자를 만들어 내기에 꼭 알맞은 것이거늘 이것을 좋아라고 배우려 들고 퍼뜨리려 드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 아니냐. <sup>8</sup>이 당학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우리나라에도 오래지 않아 큰 난이 일어날 것이요, 난이 일어난다면 누가 감당해 낼 자이랴.

“한 나이냐 젊었더면!”

<sup>10</sup>유종은 이따금 시들어 가는 제 팔뚝의 살을 어루만지면서 한탄한다. <sup>11</sup>몇 해 전만 해도 자기와 뜻을 같이하는 이가 조정에 더러는 있었지만 어느 결엔지 하나씩 둘씩 없어지고 인제는 ㉡ 무 밑둥과 같이 동그랗게 자기 혼자만 남았다. <sup>12</sup>속으로는 그의 주위에 찬동하는 이가 없지도 않으련만 당학파의 세력에 밀리어 감히 발설을 못 하는지 모르리라. <sup>13</sup>지금이라도 젊은이 축 속으로 뛰어 들어가면 동지를 얼마든지 찾아낼는지 모르리라. <sup>14</sup>아직도 이 나라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은 다음에야 방방곡곡을 뒤져 찾으면 몇천 명 몇만 명의 화랑도를 닮는 이를 모을 수 있으리라. <sup>15</sup>그러나 아들이 없는 그는 젊은이와 접촉할 기회조차 없었다. <sup>16</sup>이런 점에도 그는 아들이 없는 것이 원이 되고 한이 되었다. <sup>17</sup>㉢ 이 늙은 향도(香徒)에게 남은 오직 하나의 희망은 자기의 주의 주장에 공명하는 사윗감을 구하는 것이었다. <sup>18</sup>별써 수년을 두고 ㉣ 그릴 만한 인물을 내심으로 구해 보았지만 그리 쉽사리 눈에 뜨이지 않았다. <sup>19</sup>고르며 고를수록 사람 구하기란 하늘에 별따기보담 더 어려웠다. <sup>20</sup>유종은 기대고 있던 서안에서 쪽 미끄러지는 듯이 털요 바닥 위에 누웠다. <sup>21</sup>금지의 청혼을 그렇게 거절한 다음에는 하루바삐 사윗감을 구해야 된다. <sup>22</sup>금지로 하여금 다시 입을 열지 못하도록 ㉤ 다른 데 청혼을 해 놓아야 한다. <sup>23</sup>그러면 신라를 두 손으로 떠

MEMO

받들고 나아갈 인물이 누가 될 것인가. <sup>24</sup>삼한 통일 당년의 늠름하고 씩씩한 기풍(氣風)이 당학에 지질리고 문약(文弱)에 흐르는 이 나라를 바로잡을 인물이 누가 될 것인가.

**[중략 부분의 줄거리]** ‘유종’이 사위를 구하는 가운데, ‘주만’이 부여의 천민 석공 ‘아사달’을 사모하고 있음이 알려진다. 한편 ‘아사달’은 자신을 찾아온 아내 ‘아사녀’가 끝내 자신을 만나지 못하고 그림자못에서 죽은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못 속에서 ‘아사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돌에 담아 새겨 내는 작업에 몰입한다.

<sup>25</sup>그러나 어느 절엔지 아사녀의 환영은 깜박 사라져 버렸다. <sup>26</sup>아까까지는 어렴풋이라도 짐작되던 그 흔적마저 놓치고 말았다. <sup>27</sup>아무리 눈을 닦고 돌 얼굴을 들여다보았으나 눈매까지는 그럴싸하게 드러났지만 그 아래로는 캄캄한 밤빛이 쌓인 듯 아득할 뿐. <sup>28</sup>돌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골머리만 부질없이 헝헝 내어 돌리었다. <sup>29</sup>그러자 문득 그 돌 얼굴이 굵실 움직이는 듯하며 주만의 얼굴이 부시도록 선명하게 살아났다. <sup>30</sup>마치 어젯밤의 아사녀의 환영 모양으로.

[ 31그 눈동자는 띠룩띠룩 애원하듯 원망하듯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다.

[A] <sup>32</sup>“이 돌에 나를 새겨 주세요. <sup>33</sup>네, 아사달님, 네, 마지막 청을 들어 주세요.”

[ 34그 입술은 달싹달싹 속살거리는 것 같다.

<sup>35</sup>아사달은 정을 쥔 채로 머리를 털고 눈을 감았다. <sup>36</sup>돌 위에 나타난 주만의 모양은 그의 감은 눈시울 속으로 기어들어 오고야 말았다. <sup>37</sup>이 몇 달 동안 그와 지내던 가지가지 정경이 그림등 모양으로 어른어른 지나간다. <sup>38</sup>초파일 탐돌이할 때 맨 처음으로 마주치던 광경, 기절했다가 정신이 돌아날 제 코에 풍기던 아릿한 향기, 우레가 울고 악수가 쏟아질 적 불꽃을 날리는 듯한 그 뜨거운 입김들……. <sup>39</sup>아사달은 고개를 또 한 번 흔들었다. <sup>40</sup>그제야 저 멀리 돈짜만 한 아사녀의 초라한 자태가 아른거린다. <sup>41</sup>주만의 모양을 구름을 헤치고 뚱뚱 떠오르는 햇발과 같다 하면, 아사녀는 샅넉의 하늘에 반짝이는 별만 한 광채밖에 없었다.

[ 42물동이를 이고 치마꼬리에 그 빨간 손을 씻으며 배시시 웃는 모양, 이별하던 날 밤 그린 듯이 도사리고 남편을 기다리던 앓음앓음, [B] 일부러 자는 척하던 그 가늘게 떨던 눈시울, 버드나무 그늘에서 숨기던 눈물들…….

<sup>43</sup>아사달의 머리는 점점 어지러워졌다. <sup>44</sup>아사녀와 주만의 환영도 흔들린다. <sup>45</sup>휘슬레를 돌리듯 핑핑 돌다가 소용돌이치는 물결 속에서 조각조각 부서지는 달그림자가 이내 한 곳으로 합하듯이, 두 환영은 마침내 하나로 어우러지고 말았다. <sup>46</sup>아사달의 캄캄하던 머릿속도 갑자기 환하게 밝아졌다. <sup>47</sup>하나로 녹아들어 버린 아사녀와 주만의 두 얼굴은 다시금 거룩한 부



처님의 모양으로 변화였다.

<sup>48</sup>아사달은 눈을 번쩍 떴다. <sup>49</sup>설레던 가슴이 가을 물같이 맑아지자, 그 돌 얼굴은 세 번째 제 원불(願佛)로 변화였다. <sup>50</sup>선도산으로 누엿누엿 기우는 햇발이 그 부드럽고 찬란한 광선을 던질 제 못물은 수멸수멸 금빛 춤을 추는데 흥에 겨운 마치와 정 소리가 자지러지게 일어나 저녁나절의 고요한 못 독을 울리었다.

<sup>51</sup>새벽만 하여 한가위 밝은 달이 홀로 정 자리가 새로운 돌부처를 비칠 제 정 소리가 그치자 은물결이 잠깐 헤쳐지고 풍하는 소리가 부근의 적막을 한순간 깨트렸다.

- 현진건, 「무영탑」-

\* 당학 : 당나라의 학문.

1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의식이 내적 갈등에 초점을 둔 서술 방식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 ② 인물들 간의 대화를 통해 특정 인물의 생각과 행동을 희화화하고 있다.
- ③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신분이 낮은 인물의 발언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 ④ 물신주의에 빠진 세태가 탈속적 세계를 지향하는 인물의 비판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 ⑤ 권력과 사랑을 동시에 쟁취하여 신분 상승을 도모하는 소외된 개인의 욕망이 구체적인 일화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1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신라를 '문약하게 하는 요인'으로 '유종'이 인식하고 있는 대상이다.
- ② ㉡은 '유종'의 외로운 처지를 보여 주는 비유이다.
- ③ ㉢은 현재의 주류적 '기풍'을 거부하는 '유종'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 ④ ㉣은 '유종'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원하는 대상이다.
- ⑤ ㉤은 '유종'이 자신과 대립하는 세력과의 연대를 위한 방도이다.

MEMO

15 [A], [B]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는 떠나는 ‘아사달’에 대한 ‘주만’의 걱정이 나타나 있다.
- ② [B]에는 ‘아사달’과 ‘아사녀’의 이별의 원인이 제시되어 있다.
- ③ [B]에는 훗날의 만남에 대한 ‘아사달’과 ‘아사녀’의 기억이 나타나 있다.
- ④ [A]와 [B] 모두에서, 이별한 대상인 ‘주만’과 ‘아사녀’를 잊고자 하는 ‘아사달’의 의지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 ⑤ [A]의 ‘주만’의 모습과 [B]의 ‘아사녀’의 모습은 모두 ‘아사달’이 그들의 환영을 보는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다.

16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무영탑」은 작가 현진건의 예술관, 민족주의적 태도, 현실 인식 등을 드러낸 작품이다. 이 작품은 석가탑 조성에 얽힌 인물들의 이야기를 펼쳐 내면서 숭고한 예술적 성취의 과정을 잘 보여 준다. 이러한 예술적 성취는 석공 아사달이 자신의 고뇌를 극복하며 예술품을 만들어 가는 과정, 특히 사랑과 예술혼이 하나로 융합되어 신앙의 궁극이라는 새로운 경지에 이르는 데에서 잘 드러난다.

- ① ‘유종’이 ‘이백’을 칭송하는 ‘금지’를 비판하고 화랑도 사윳감을 구하려 하는 장면에서, 작가의 민족주의적 태도를 엿볼 수 있군.
- ② ‘아사달’이 ‘아사녀’의 환영을 등에 담아내려고 하는 장면에서, 주인공의 사랑과 예술혼을 융합해 내려는 작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군.
- ③ ‘금지’와 같은 ‘당학파’를 ‘나라를 좀먹게 하는’ 집단으로 간주하는 장면에서, 외세를 추종하는 현실을 비판하려는 작가의 태도를 엿볼 수 있군.
- ④ ‘아사녀’와 ‘주만’의 환영이 하나로 어우러져 ‘부처님의 모양’으로 변한 장면에서, 신앙의 세계로 나아갈 수 없어 절망하는 인물의 내면이 나타나 있군.
- ⑤ ‘아사달’이 ‘아사녀’를 ‘별만 한 광채’로, ‘주만’을 ‘떠오르는 햇빛’로 떠올리며 갈등하는 장면에서, 새로운 예술적 경지에 이르는 과정에서 빚어진 ‘아사달’의 고뇌가 드러나 있군.



17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MEMO

보기

아사달과 아사녀의 이야기는 조선 후기의 설화(「서석가담」)뿐만 아니라, 현진건의 기행문(「고도 순례 경주」, 1929)과 그의 소설(「무영탑」, 1939)에도 나타난다.

[자료 1]

불국사 창건 시 당나라에서 온 석공에게 아사녀라는 여인이 있었다. 아사녀가 갑자기 와서 석공과 만나기를 요구하였으나, 큰 공사가 끝나지 않았고 아사녀가 비루한 몸이라는 이유로 허락되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아사녀가 남서쪽 십 리쯤에 있는 연못을 내려다보면 석공이 보일 듯하여, 가서 살펴보니 정말 석공의 모습이 비쳤다. 그러나 탑의 그림자는 비치지 않았다. 그래서 무영탑이라 불렀다.

- 「서석가담」-

[자료 2]

제 환상에 떠오른 사랑하는 아내의 모양은 다시금 거룩한 부처님의 모양으로 변하였다. 그는 제 예술로 죽은 아내를 살리고 아울러 부처님에게까지 천도(薦度)하려 한 것이다. 이 조각이 완성되면서 자기 역시 못 가운데 몸을 던져 아내의 뒤를 따랐다. 불국사 남서방에 영지(影池)란 못이 있으니 여기서 곧 아사녀와 당나라 석공이 빠져 죽은 데다.

- 현진건, 「고도 순례 경주」-

- ① 윗글은 [자료 1]과 같은 설화를 차용하여 소설로 변용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군.
- ② 윗글은 [자료 2]처럼 ‘아내’의 죽음을 종교적 상징으로 승화하고 있는 관점을 이어 간 작품이군.
- ③ 윗글은 [자료 1]과 [자료 2]의 이야기에 ‘유종’과 ‘주만’ 등의 서사를 추가하고 있군.
- ④ 윗글과 [자료 2]의 ‘못’은 [자료 1]의 ‘연못’이 부부간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환기하는 공간으로 변용된 것이군.
- ⑤ 윗글의 ‘새로운 돌부처’ 형상에 석공의 얼굴이 새겨진 것은 윗글이 [자료 1]과 [자료 2]의 서사 모티프를 이어받은 것으로 볼 수 있군.



# \* 4 회 차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14학년도 수능 B형 )

1“도대체 박준은 어째서 꼭 불을 밝혀 놓아야 잠이 들 수 있었을까요. 2 그리고 전깃불을 보고는 왜 갑자기 발작을 일으킨 것입니까?”

3“중요한 걸 물으시는군요.”

4잠시 입을 다물고 있던 김 박사는 그 동안 나에게서 그런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기라도 한 듯 이번에는 박준의 버릇에 대해 다시 설명을 시작했다.

5“글쎄, 나 역시도 어젯밤 우연히 그런 발작이 나기 전까지는 환자가 특히 어둠을 싫어하는 이유를 알아 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6그야 물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다른 환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병증의 하나임엔 틀림없지요. 7하지만 이제까지의 관찰로는 영 그 원인을 분석해 낼 재간이 없었던 말입니다. 8한데 어젯밤 발작을 보고는 비로소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었어요. 9무슨 얘기냐 하면, 환자가 그토록 어둠을 싫어하게 된 것은 직접적으로 그 어둠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어둠으로부터 연상되는 어떤 다른 공포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0이 틀테면 그 전깃불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거지요. 11환자가 진짜 발작을 일으키도록 심한 공포감을 유발시킨 것은 어둠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 나타난 전깃불이었던 말씀입니다. 12환자에겐 그 어둠이라는 것이 늘 전깃불을 연상시키는 공포의 촉매물이었지요.”

13“그렇다면 앞으로의 문제는 박준이 무엇 때문에 그 전깃불에 공포를 느끼게 되는지 그걸 알아내는 것이겠군요. 14그게 바로 박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최초의 갈등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15“옳은 말씀이에요. 16전깃불의 비밀이야말로 박준 씨의 치료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지요.”

17“하지만 어젯밤 박준이 전깃불을 보고 놀랐던 것만으론 그가 어째서 그것에 대해 공포감을 지니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전깃불의 공포라는 것이 박준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 아직 설명하실 수가 없으신 것 아닙니까?”

18“아직까지는 그런 셈이지요.”

19“역시 그의 소설에 대해 관심을 좀 가져 보시는 게 어떨까요?”

20나는 필시 박준의 소설들과 전깃불 사이엔 뭔가 썩 깊은 상관이 있는 듯한 예감에 사로잡히며 은근히 김 박사를 권해 보았다. 21그러나 김 박사는 박준의 소설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을 보이려 하지 않았다.

22“역시 그럴 필요는 없어요. 23별로 기분 좋은 방법이 아니기는 하지만, 이제 최소한 환자로 하여금 전깃불의 내력을 포함한 모든 비밀을 털어놓게 할 마지막 방법은 찾아 놓고 있는 셈이니까요.”

(중략)

24-이 달의 화제작, 화제작가.



MEMO

<sup>25</sup>신문지는 벌써 이태쯤 전에 발간돼 어떤 주간지의 한 조각이었는데, 거기에는 우선 그런 제호가 크게 눈에 띄고 있었다. <sup>26</sup>그리고 그 제호 한쪽으로는 그 달에 발표된 박준의 소설이 한 편 몇몇 평론기들로부터 합평되어 있고, 다른 한쪽으로는 그 달의 화제 작가로서 박준을 인터뷰한 기사가 실려 있었다.

<sup>27</sup>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sup>28</sup>신문지 조각을 못에서 빼어 냈다. <sup>29</sup>그러나 금세 실망이 되고 말았다. <sup>30</sup>기사가 별로 읽을 만한 곳이 남아 있지 않았다. <sup>31</sup>대부분의 기사가 다른 조각으로 찢어져 나가 버리고 없었다. <sup>32</sup>하지만 그 찢겨져 나간 다른 조각들을 찾아낼 수가 없었다. <sup>33</sup>이미 휴지로 사용이 되고 만 모양이었다. <sup>34</sup>남아 있는 것은 그의 인터뷰 기사 중의 몇 마디뿐이었다. <sup>35</sup>나는 그것이나마 찢어지다 남은 데서부터 기사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sup>36</sup>-당신은 아까 내가 **위험한 질문**이라고 한 말의 뜻을 아직 잘 알아듣지 못한 모양이다. <sup>37</sup>그렇다면 내가 좀더 설명을 하겠다……

<sup>38</sup>어마 기자의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연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sup>39</sup>박준은 이야기를 꽤 길게 계속하고 있다.

<sup>40</sup>- 어렸을 때 겪은 일이지만 난 아주 **기분 나쁜 기억**을 한 가지 가지고 있다. <sup>41</sup>6.25가 터지고 나서 우리 고향에는 한동안 우리 경찰대와 지방 공비가 뒤죽박죽으로 마을을 찾아드는 일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밤 경찰인지 공비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또 마을을 찾아 들어왔다. <sup>42</sup>그리고 그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은 우리집까지 찾아 들어와서 어머니하고 내가 잠들고 있는 방문을 열어 젖혔다. <sup>43</sup>눈이 부시도록 밝은 전깃불을 얼굴에다 내리비추며 어머니더러 당신은 누구의 편이냐는 것이었다. <sup>44</sup>하지만 어머니는 그때 얼른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sup>45</sup>전깃불 뒤에 가려진 사람이 경찰대 사람인지 공비인지를 구별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sup>46</sup>대답을 잘못 했다가는 지독한 복수를 당할 것이 뻔한 사실이었다. <sup>47</sup>하지만 어머니는 상대방이 어느 쪽인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채 대답을 해야 할 사정이었다. <sup>48</sup>어머니의 입장은 절망적이었다. <sup>49</sup>나는 지금까지도 그 절망적인 순간의 기억을,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가려 버린 전깃불에 대한 공포를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다.

<sup>50</sup>그런데 요즘 나는 나의 **소설 작업** 중에도 가끔 그 비슷한 느낌을 경험하곤 한다. <sup>51</sup>내가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 마치 그 얼굴이 보이지 않는 전깃불 앞에서 일방적으로 나의 진술만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이다. <sup>52</sup>문학 행위란 어떻게 보면 가장 성실한 작가의 **자기 진술**이라고 할 수 있다. <sup>53</sup>한데 나는 지금 어떤 전깃불 아래서 나의 진술을 행하고 있는지 때때로 엄청난 공포감을 느낄 때가 많다는 말이다. <sup>54</sup>지금 당신 같은 질문을 받게 될 때가 바로 그렇다…….

<sup>55</sup>박준의 말은 거기서 일단 끝이 나고 있는 듯이 보였다. <sup>56</sup>그리고 신문

MEMO

이 찢어져 나가 버린 것도 거기서부터였다.

- 이청준, '소문의 벽'

1 읽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김 박사'는 '박준'이 느끼는 공포감의 비밀을 밝힐 방법을 찾았다고 믿는다.
- ② '김 박사'의 말을 들은 '나'는 그의 치료 방안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하게 된다.
- ③ '박준'이 어둠 때문에 발작을 일으킨 일이 있음을 '김 박사'는 알지 못하고 있다.
- ④ '어머니'의 입장이 절망적인 것은 아들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 때문이다.
- ⑤ 신문지 조각을 읽은 '나'는 궁금해 하는 사실과 기사의 내용이 거리가 있어서 실망한다.

2 [A]의 서사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지역을 배경으로 설정하여 공간의 상징적 의미를 부각한다.
- ② 인물의 행동을 객관적 시점에서 묘사하여 인물의 성격을 짐작하게 한다.
- ③ 주인공의 두 경험을 연관 지어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단서를 제공한다.
- ④ 동일한 사건을 다각적으로 구성하여 사건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열어 놓는다.
- ⑤ 이질적인 시선을 대비해 가며 역사적인 사건의 전모가 총체적으로 드러나도록 한다.



3 <보기>를 참고하여 밑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M E M O

보기

정신적 외상(trauma)은 충격적 경험의 기억이 무의식에 잠재되었다가 정신적 병증의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모습을 드러낸다. 그 기억은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이를 들추어 ‘말문’을 트게 하는 것은 정신적 병증의 치유에서 중요한 과정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공동체의 위기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외상에 대해 ‘말문 트기’가 요구된다. 이런 점에서 소설은 개인의 이름은 물론 사회적 병증을 치유해 주는 개인적·사회적 말문 트기의 하나라 할 수 있다.

- ① ‘전깃불의 공포’를 강하게 느끼는 ‘박준’은, 일방적 진술을 강요하는 듯한 사회적 상황에 직면하여 고통 받는 이들을 상징하는 인물이겠군.
- ② ‘전깃불의 공포’와 ‘소설 작업’의 관계에 주목해 보면, 소설쓰기를 통한 ‘박준’의 ‘자기 진술’은 치유 방법으로서의 말문트기에 상응하는 것이겠군.
- ③ ‘자기 진술’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박준’의 고백은,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자기 진술’의 상황 속에서 정신적 외상이 환기된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 ④ 유년의 ‘기분 나쁜 기억’이 전쟁으로 인한 공동체의 위기 상황과 관련되었다는 설정을 통해, ‘박준’의 정신적 외상이 사회적 차원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겠군.
- ⑤ 정신적 외상의 최초 원인을 밝히기 위해 김 박사가 ‘박준’의 과거 기억을 진술하게 할 계획을 세웠다면, 이는 ‘위험한 질문’을 회피하기 위한 말문 트기 방법을 모색한 결과이겠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19학년도 수능 )

(가)

<sup>1</sup>그 골목이 그렇게도 짧은 것을 그가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을 때, 신랑의 몸은 벌써 차 속으로 사라지고, 자기와 차 사이에는 몰려든 군중이 몇 겹으로 길을 가로막았다. <sup>2</sup>이쁜이 어머니는 당황하였다. <sup>3</sup>그들의 틈을 비집고,

“이제 가면, 네가 언제나 또 온단 말이나? ……”

<sup>5</sup>딸이 이제 영영 돌아오지 못하구나 하는 것같이, 그는 막 자동차에 오르려는 딸에게 달려들어,

“이쁜아.”

<sup>7</sup>한마디 불렀으나, 다음은 목이 메어, 얼마를 병하니 딸의 옆얼굴만 바라보다가, 그러한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줄 턱없는 운전수가, 재촉하는 경적을 두어 번 울렸을 때, 그는 또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모든 걸, 정신 채려, 조심해서, 해라 ……”

<sup>9</sup>그러나 ㉠ 자동차의 문은 유난히 소리 내어 닫히고, 다시 또 경적이 두어 번 운 뒤, 달리는 자동차 안에 이쁜이 모양을, 어머니는 이미 찾아볼 수가 없었다. <sup>10</sup>그는 실신한 사람같이, 얼마를 그곳에 서 있었다. <sup>11</sup>깨닫지 못하고, 눈물이 뺨을 흐른다. <sup>12</sup>그 마음속을 알아주면서도, 아낙네들이, 경사에 눈물이 당하냐고, 그렇게 책망하였을 때, 그는 갑자기 조금 웃고, 그리고, 문득,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대로 그곳에서 혼도해 버리고 말 것 같은 극도의 피로와, 또 이제는 이미 도저히 구할 길 없는 마음속의 공허를, 그는 일시에 느꼈다.

제6절 몰락

<sup>13</sup>한편에서 이렇게 경사가 있었을 때-(그야, 외딸을 남을 주고 난 그 뒤에, 흠어머니의 외로움과 슬픔은 컸으나 그래도 아직 그것은 한 개의 경사라 할 밖에 없을 것이다)-, 또 ㉡ 한편 개천 하나를 건너 신전 집에 서는, 바로 이날에 이제까지의 서울에서의 살림을 거두어, 마침내 애달프게도 온 집안이 시골로 내려갔다.

<sup>14</sup>독자는, 그 수다스러운 점룡이 어머니가, 이미 한 달도 전에, 어디 서 어떻게 들었던 것인지, 쉬이 신전 집이 낙향을 하리라고 가장 은근하게 빨래터에서 하던 말을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sup>15</sup>이른테면 그것이 그대로 실현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sup>16</sup>그러나 다만 그들의 가는 곳은, 강원도 춘천이라든가 그러한 곳이 아니라, 경기 강화였다.

<sup>17</sup>이 봄에 대학 의과를 마친 둘째 아들이 아직 취직처가 결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서울 하숙에 남아 있을 뿐으로-(그러나, 그도 그로써 얼마 안 되어 충청북도 어느 지방의 ‘공의’가 되어 서울을 떠나고 말았다)-, 신전 집의 온 가족은, 아직도 장가를 못 간 주인의 처남까지도 바로 어디 나들



MEMO

이라도 가는 것처럼, 별로 남들의 주의를 끄는 일도 없이, 스무 해를 살아 온 이 동리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sup>18</sup>한번 기울어진 가운은 다시 어찌는 수 없어, 온 집안사람은, 언제든 당장이라도 서울을 떠날 수 있는 준비 아래, 오직 주인 영감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므로, 동리 사람들도 그것을 단지 시일 문제로 알고 있었던 것이나, 그래도 이 신전 집의 몰락은, 역시 그들의 마음을 한때, 어둡게 해 주었다.

<sup>19</sup>그러나 오직 그뿐이다. <sup>20</sup>이 **도회에서의 패잔자**는 좀 더 남의 마음에 애달픔을 주는 일 없이 무심한 이의 눈에는, 참말 어디 불일이라도 보러 가는 사람같이, 그곳에서 얼마 안 되는 작은 광고 차부에서 강화행 자동차를 탔다. <sup>21</sup>천변에 일어나는 온갖 일에 관찰을 게을리하지 않는 **이발소 조련이**, 용하게도 막, 그들의 이미 오래 전에 팔린 집을 나오는 일행을 발견하고 그대 이발소 안의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았을 뿐으로, 그들이 남부끄럽다 해서, 고개나마 변변히 못 들고 빠른 걸음걸이로 천변을 걸어 나가, 그대로 큰길로 사라지는 뒷모양이라도 흘끗 본 이는 몇 명이 못 된다. <sup>22</sup>⊕ **얼마 있다, 원래의 신전은 술집으로 변하고, 또 그들의 살던 집에는 좀 더 있다, 하숙옥 간판이 걸렸다.**

- 박태원, 「천변풍경」 -

(나)

#68. 산비탈 길

<sup>1</sup>뚜벅뚜벅 걷고 있는 철호.

#69. 피난민 수용소 안(회상)

<sup>2</sup>담요바지 철호의 아내가 주워 모은 널빤지 조각을 이고 들어와 부엌에 내려놓고 흠어진 머리칼을 치키며 숨을 돌리고 있다.

**철호⊕\*** : <sup>3</sup>저걸 저토록 고생시킬 줄이야.

<sup>4</sup>담요바지 아내의 모습 위에 - O·L\* -

<sup>5</sup>여학교 교복을 입고 강당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시절의 아내.

<sup>6</sup>또 O·L되며 신부 차림의 아내가 노래를 부르고 있다. <sup>7</sup>그 옆에 상기되어 앉아 있는 결혼 피로연 석상의 철호. <sup>8</sup>노래는 ‘돌아오라 소렌토’.

#70. 산비탈

<sup>9</sup>철호가 멍하니 시가지를 내려다보고 섰다. <sup>10</sup>황홀에 묻힌 거리.

#71. 자동차 안

<sup>11</sup>해방촌의 **골목길**을 운전수가 땀을 빼며 빠져나와서 뒤를 돌아보고

**운전수** : <sup>12</sup>손님! <sup>13</sup>이상 더 올라가지 못하겠는데요.

**영호** : <sup>14</sup>그럼 내립시다. <sup>15</sup>시시한 동네까지 몰구 오느라고 수고했소.

<sup>16</sup>천 환짜리 한 장을 꺼내 준다.

**운전수** : <sup>17</sup>(공손히) 감사합니다.

#72. 철호의 방 안

<sup>18</sup>철호의 아내가 만삭의 배를 안고 누더기를 껴매고 있다. <sup>19</sup>옆에서 꼴꼴 자고 있는 해옥.

MEMO

영호 : <sup>20</sup>(들어오며) 혜옥아!

(중략)

#73. 철호의 집 부엌 안

<sup>21</sup>민호가 팔다 남은 신문을 끼고 들어와 신들메를 끌르며

민호 : <sup>21</sup>에이 날씨도 꼭 겨울 같네.

철호Ⓢ : <sup>22</sup>어쨌든 너도 인젠 정신을 차려야지! <sup>23</sup>군대에서 나온 지도 이태나 되잖니.

영호Ⓢ : <sup>24</sup>정신 차려야죠. <sup>25</sup>그렇잖아도 금명간 판결이 날 겁니다.

철호Ⓢ : <sup>26</sup>어디 취직을 해야지.

#74. 철호의 집 방 안

영호 : <sup>27</sup>취직이요. <sup>28</sup>형님처럼 전차 값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남의 살림이나 계산해 주란 말예요? <sup>29</sup>싫습니다.

철호 : <sup>30</sup>그럼 뭐 뽀족한 수가 있는 줄 아니?

영호 : <sup>31</sup>있지요. 남처럼 용기만 조금 있으면.

철호 : <sup>32</sup>용기?

영호 : <sup>33</sup>네. 분명히 용기지요.

철호 : <sup>34</sup>너 설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영호 : <sup>35</sup>엉뚱하긴 뭐가 엉뚱해요.

철호 : <sup>36</sup>(버럭 소리를 지르며) 영호야! <sup>37</sup>그렇게 살자면 이 형도 벌써 잘 살 수 있었던 말이다.

영호 : <sup>38</sup>저도 형님을 존경하지 않는 건 아녜요. <sup>39</sup>가난하더라도 깨끗이 살자는 형님을 ..... <sup>40</sup>허지만 형님! 인생이 저 골목에서 십 환짜리를 받고 코 흘리는 어린애들에게 보여 주는 요지경이라면서 가지고 있는 돈값만치 구멍으로 들여다보고 말 수도 있죠. <sup>41</sup>그렇지만 어디 인생이 자기 주머니 속의 돈 액수만치만 살고 그만둘 수 있는 요지경인가요? <sup>42</sup>형님의 어금니만 해도 푹푹 쑤시고 아픈 걸 견뎌내고 절약이 되는 건 아니죠. <sup>43</sup>그러니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지긋지긋하게 살아야 하니까 문제죠. <sup>44</sup>왜 우리라고 좀 더 넓은 테두리까지 못 나가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sup>45</sup>영호는 반쯤 끌러 났던 넥타이를 풀어서 방구석에 픽 던진다.

<sup>46</sup>철호가 무겁게 입을 연다.

철호 : <sup>47</sup>그건 억설이야.

영호 : <sup>48</sup>억설이오?

철호 : <sup>49</sup>네 말대로 꼭 잘살자면 양심이구 윤리구 버려야 한다는 것 아니야.

영호 : <sup>50</sup>천만에요.

#75. 철호의 집 골목

<sup>51</sup>스카프를 두르고 핸드백을 걸친 명숙이가 엿듣고 있다.

철호Ⓢ : <sup>52</sup>그게 바루 억설이란 말이다. <sup>53</sup>마음 한구석이 어딘가 비틀려서 하는 억지란 말이다.



MEMO

영호㉔ : <sup>54</sup>비틀렸죠. 분명히 비틀렸어요. <sup>55</sup>그런데 그 비틀리기가 너무 늦  
었다 말입니다.

- 이범선 원작, 이종기 각색, 「오발탄」 -

\* ㉔ : 효과음(effect). 화면에 삽입된 음향.

\* O·L(overlap) : 하나의 화면이 끝나기 전에 다음 화면이 겹치면서 먼저 화면이 차  
차 사라지게 하는 기법.

4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 간의 대결 의식을 통해 사건의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②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특정 인물의 생각과 행동을 희화화하고 있  
다.
- ③ 인물의 화상 장면을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과거에서 찾고 있  
다.
- ④ 인물 간의 갈등을 다각적으로 조명하여 사건 전개에 양상을 다면화  
하고 있다.
- ⑤ 인물의 내면을 행위로 제시하여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심  
리를 보여 주고 있다.

5 (가)의 **이발소 소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변을 관찰하여 일상의 변화를 포착한다.
- ② 특정 가족이 몰락하게 된 이유를 분석한다.
- ③ 새로운 사건을 모으고 그 진위를 논평한다.
- ④ 천변의 소식을 타 지역 주민에게 전해 준다.
- ⑤ 천변 주민들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중재한다.

6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독자가 가진 정보를 상기시키고 있다.
- ② 정보를 제공한 인물을 독자에게 환기시키고 있다.
- ③ 독자를 언급하여 서술자의 개입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정보가 실현되지 못한 원인을 독자의 망각에서 찾고 있다.
- ⑤ 인물의 행선지와 관련한 정보를 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MEMO

7 (가)와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짧게 느껴지는 ‘골목’은 어머니의 아쉬움을, (나)의 빠져나오기 힘든 ‘골목길’은 ‘시시한 동네’의 열악함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가)는 딸이 멀리 떠나는 모습을 통해, (나)는 명숙이 집 밖에서 엿듣는 모습을 통해 가족들 간의 갈등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가)의 ‘눈물’은 가족을 떠나보내는 자의 아픔을, (나)의 ‘어금니’는 가족의 생계를 꾸려 나가는 자의 견담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가)는 주인 영감의 명령만을 기다리는 신전 집 가족들을 통해, (나)는 만삭의 몸에도 누더기를 껴매는 아내의 모습을 통해 가족이 처한 불우한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가)는 ‘도회에서의 패잔자’가 낙향하는 모습을 통해, (나)는 영호가 취직을 거부하는 모습을 통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의 처지를 보여 주고 있다.

8 (나)의 '#68~#71'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68의 장면에서 이어지는 #69에서 ‘철호®’를 삽입하여 회상의 주체가 철호임을 알려 주고 있다.
- ② #69에서 ‘철호®’를 삽입하여 아내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 ③ #69에서 ‘노래’를 활용하여 학창 시절 아내의 화면을 결혼 피로연장 아내의 화면으로 전환하고 있다.
- ④ #70에서 침묵하는 철호의 모습과 시가지의 분위기를 대비하여, 거리를 바라보는 철호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다.
- ⑤ #70의 침묵과 #71의 대화를 상호 대비하여 영호의 소심함을 드러내고 있다.



MEMO

9 <보기>를 바탕으로 (가)의 ㉠~㉢과 (나)의 '#71~#75'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작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모든 상황을 서술하지는 않는다. 일련의 상황이나 사건들 중 작가의 시선에 의해 특정한 부분이 부각되어 서술되는 것이다. 즉, 서사는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사건의 선택과 결합을 통해 구성된다.

선택이란 시간과 공간을 분할한 후 의미 있는 부분을 선택하는 것을, 결합이란 이렇게 선택된 시간과 공간을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하여 새롭게 사건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서사는 다양한 사건 구성의 방식을 통해 인간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고민을 담고 있다.

- ① ㉠에서는 두 인물 사이에서 발생한 여러 상황에서 몇 개의 상황만을 선택적으로 제시하여 그 상황에 대한 인물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고, #71과 #72에서는 서로 다른 두 공간을 동일 인물의 등장으로 연결하여 인물의 공간 이동을 나타내는군.
- ② ㉡에서는 같은 날에 서로 다른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사건이 일어났음을 밝혀 ㉡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결합하고 있고, #73과 #74의 서로 다른 공간은 동일한 인물들의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 서로 결합하고 있군.
- ③ ㉢에서는 일련의 상황을 선택적으로 제시하면서 인물들에 대한 감정을 서술하고 있고, #73~#75에서는 두 인물의 대화를 매개로 서로 다른 공간을 결합함으로써 #73과 #75의 장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74의 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군.
- ④ ㉠과 ㉡의 연결은 같은 날에 서로 다른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연결이라는 점에서는 #74와 #75의 연결과 유사하지만, 인물의 목소리를 활용하는 #74와 #75의 연결과 비교하면 연결 방식에서 구별되는군.
- ⑤ ㉢은 시간의 흐름을 분할하고 대상의 특징적인 변화를 선택하여 제시한다는 점에서 #75와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두 공간의 결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75와 구별되는군.

MEMO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09학년도 9월 평가원 )

1어둠이 짙 갈려 간 밤하늘에는 별들이 빙판(氷板)에 얼어붙은 구슬들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2찬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지나갈 때마다 낙엽이 우수수 발밑으로 떨어져 흩어졌다. 3그는 **지금** 가로수에 기대어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4무거운 마음이 좀처럼 가라앉지가 않았다. 5그는 즈봉 포켓 속에 구겨 넣은 신문지를 다시금 손으로 구겨 쥐었다. 6어머니 -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부르짖었다. 7그 순간 '아래는 아들의 소식을 듣고 실신한 노모'라는 ㉠신문 구절과 함께 노파의 주름진 얼굴이 어머니 얼굴과 겹쳐서 떠올랐다. 8그러나

[A] 곧 '모두가 조국을 위해서다.' 하는 음성이 그의 마음을 뒤덮고 지나갔다.

9'이미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만이 있는 몸이다. 10지금의 네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보다 더 보람 있는 하나를 위해서 하나를 버려야지.'

11약 이 개월 전 일이었다. 12그가 투신하고 있는 비밀결사에서는 한 사람을 암살하지 않으면 안 될 경지에 놓여 있었다. 13그리고 바로 계획된 **그날 밤** 오랜 신병 끝에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그의 어머니가 숨겨 가고 있었던 것이었다.

14클랙스 소리가 짧게 밖에서 또 한 번 울려 오고 있었다. 15정각에서 삼십 분 전. 16야광 초침이 파란 빛깔을 그으면서 아라비아 숫자가 나열된 동그란 원반 위를 움직이고 있었다. 17㉢클랙스 소리가 다시 짧게 울렸다. 18그는 묵묵히 고개를 들고 어둠과 마주 섰다.

19'연기는 안 돼. 20생각해 봐. 21우리가 오늘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과 정력을 소비했나를……. 22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실패하는 경우엔 이미 우리들의 계획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야 하는 거야. 23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거야. 24

[B] 지금 우리들은 삼이라는 성공 숫자 앞에 와 있다. 25알겠지? 26어머니는 우리가 말을 테다. 27조국을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버리기로 한 우리들이 아니냐.'

28나직하면서도 몹시 초조한 음성이었다. 29그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30어머니의 신음 소리가 무겁게 방 안에서 울려 나오고 있었다.

(중략)

31의식을 잃고 누워 있던 어머니는 방문이 부시시 열리는 소리에 눈을 떴다. 32천장이 축 처져서 내려앉은 ㉣방 안은 더욱 답답하고 어두웠다. 33그는 어머니 앞으로 조용히 다가가서 꿇어앉았다. 34고개를 약간 모로 눕히면서 아들 모습을 더듬어 가고 있는 그 눈빛은 다 꺼져 가는 모닥불처럼 희미하게 등잔불 빛에 반사되어 빛나고 있었다.

35'어머니…….'

36노파는 아들의 음성을 알아들었는지 고개를 간신히 흔들어 보이는 것



MEMO

같았다.

<sup>37</sup>“어머니, 의사가 왔됐어요?”

<sup>38</sup>그러나 노파는 가만히 있었다. <sup>39</sup>그는 어머니가 말귀를 못 알아들었는  
가 하여 다시 한 번 어머니 귀 가까이 입을 대고 물어보았다. <sup>40</sup>그리고  
나서 어머니 표정을 조용히 지켜다. <sup>41</sup>힘하게 주름져 간 입술이 움직거리  
는 것 같았다. <sup>42</sup>어머니 손이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는 듯하므로 그는 어머  
니의 손을 마주 잡으며 물었다.

<sup>43</sup>“왜 그러세요?”

<sup>44</sup>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손만을 꼭 움켜쥐는 것이었다. <sup>45</sup>어머니  
는 곧 아들의 손을 끌어당겨 자기 뺨 위로 가져갔다. <sup>46</sup>그리고 이미 시선  
과 손의 감각만으로써는 아들을 느껴 볼 수가 없는 듯이 아들의 손을 자  
기 입술에 가져다 대어 보는 것이었다. <sup>47</sup>그는 가슴이 몽클 뜨거운 물결  
속에 휩쓸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sup>48</sup>그는 순간 **머칠 전** 집을 나갈 때 간신  
히 입을 열고 중얼거리던 어머니 말씀이 눈앞에 또렷이 아로새긴 것처럼  
떠오르는 것이었다.

<sup>49</sup>“언제 돌아오냐?”

<sup>50</sup>“오늘은 못 돌아올 것 같아요. <sup>51</sup>저 옆집 아주머니한테 부탁을 했어요.  
<sup>52</sup>그리고 좀 돌봐 달라고 돈도 드렸으니까 근심 마세요. <sup>53</sup>의사도 이따 저  
녁에 다시 한번 들를 거예요.”

<sup>54</sup>“오냐.”

<sup>55</sup>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잠시 멍하니 허공에 눈 주고 있다가 혼잣말처럼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C] <sup>56</sup>“어머니는 아들만을 위해서 있단다. <sup>57</sup>나이 들면 들어 갈수록…….”  
<sup>58</sup>그러나 아들이야 그럴 수 있겠니, 제 할 일이 더 중한데…….”

<sup>59</sup>그 말을 듣는 순간 노쇠한 어머니의 애뜻한 기대를 깨닫지 못하는 바  
아니었으나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던 것이었다.

<sup>60</sup>그는 **지금**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힌 채 자기 손을 끌어당겨다 입술 위  
에 대고 어루만지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잠시 지켜보고 있었다. <sup>61</sup>얼마  
후 자기 손을 어루만지던 어머니의 손은 맥없이 그대로 멈추어졌다. <sup>62</sup>그  
는 뼈만이 앙상한, 여윈 어머니의 손가락으로부터 어머니 눈 위로 시선을  
옮겼다. <sup>63</sup>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희미한 어머니의 눈빛, 마치 그것은 먼지  
속에 퇴색하여 버린 **유리알**처럼 빛을 잃고 있었다. <sup>64</sup>그 순간 어머니는  
지금 아들의 모습을 바라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마음속에서 느끼  
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에 어두운 선을 그으며 지나갔다.

<sup>65</sup>**다음날** 그는 밀회 시간을 어기고 그대로 어머니 곁에 있었다. <sup>66</sup>정오가  
가까워서였다. <sup>67</sup>자동차의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니 집 앞에서 급히  
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났다.

- 오상원, 「모반」 -

MEMO

10 위 글의 서술상의 시간을 <보기>와 같이 정리했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지금(1) → 그날 밤 → 며칠 전 → 지금(2) → 다음날

- ① ‘지금’(1)과 ‘지금’(2)는 공간적 배경이 다르다.
- ② ‘그날 밤’과 ‘지금’(2)는 시간적 배경이 동일하다.
- ③ ‘그날 밤’과 ‘며칠 전’ 장면은 서술자의 시점이 서로 다르다.
- ④ 실제 시간 순으로 배열하면 ‘며칠 전’이 가장 먼저이다.
- ⑤ ‘다음날’에는 새로운 사건의 발생이 암시되어 있다.

11 ㉠~㉣ 중 <보기>에서 설명하는 ‘이것’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이것’은 주체와 타자, 주체와 세계를 연결하는 사회적 통로이다. ‘이것’을 매개로 주체는 타자와 세계에 대한 앎을 확장하며, 그럼으로써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재인식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구성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동시성과 공공성을 특징으로 하는 ‘이것’은 현대소설에서 중요한 서사적 기능을 갖는 장치로 활용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2 <보기>의 ㉠~㉣ 중 [A]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만을 있는대로 고른 것은?

보기

소설 읽기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일종의 여행이다. 우리를 안내하는 작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여행을 돕는다. 그는 ㉠ 상황을 요약하여 제시해 줌으로써 우리의 수고를 덜어 주기도 하고, ㉡ 개념적인 언어로 자신의 사상을 직접 피력하기도 한다. 그러나 집을 떠난 여행이 그렇듯이 소설을 읽는 여정 역시 순조롭지만은 않다. 작가는 ㉢ 외부 사물의 묘사로 복잡한 심리 상태를 암시하기도 하고, ㉣ 예상하지 못했던 극적인 반전으로 우리를 당황하게 하기도 한다.

- ① a, b      ② a, c      ③ b, c
- ④ b, d      ⑤ c, d

13 [B]와 [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B]에서는 ‘그’가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 ② [B]에서는 ‘비밀결사’가 ‘그’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 ③ [C]에서는 ‘그’의 ‘할 일’에 대한 어머니의 불신을 읽을 수 있어.
- ④ [C]에서는 ‘그’를 만류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안타까운 심정을 읽을 수 있어.
- ⑤ [B]와 [C]의 두 목소리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의 심리를 읽을 수 있어.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

M E M O

1“누가 돈 쓰는 것을 아랑곳하겠나? 누가 저더러 돈을 쓰라니 걱정인가? 내 돈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쓰든지…….”

2“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에…….”

3조금 뜸하여지며 부친이 씹지를 풀어서 담배를 담는 동안에 상훈이는 나직이 말을 꺼냈다.

4“……돈 쓰신다고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공연한 일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이 첫째 잘못이란 말씀입니다.”

5“무에 어찌 공연한 일이란 말이나?”

6부친의 어기는 좀 낮추어졌다.

7“대동보소만 하더라도 족보 한 질에 오십 원씩으로 매었다 하니 그 오십 원씩을 꼭꼭 수봉하면 무엇 하자고 삼사천 원이 가외로 들겠습니까?”

8“삼사천 원은 누가 삼사천 원 썼다던?”

9㉠ 영감은 아들의 말이 옳다고는 생각하였으나 실상 그 삼사천 원이란 돈이 족보 박이는 데에 직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 조씨로 무후(無後)한 집의 계통을 이어서 일문일족에 끼려 한즉 군식구가 늘

[A] 면 양반에 진국이 뭉어질까 보아 반대를 하는 축들이 많으니까 그 입들을 씻기 위하여 쓴 것이다. 10하기 때문에 난봉자식이 난봉 피운 돈 액수를 줄이듯이 이 영감도 실상은 한 천 원 썼다고 하는 것이다. 11중간의 험잡매는 이런 약점을 노리고 우려 쓰는 것이지만 이 영감으로서 성한 돈 가지고 이런 병신 구실 해 보기는 처음이다.

12“그야 얼마를 쓰셨던지요. 그런 돈은 좀 유리하게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13‘재하자 유구무언(在下者 有口無言)’의 시대는 지났다 하더라도 노친 앞이라 말은 공손했으나 속은 달았다.

14“어떻게 유리하게 쓰란 말이나? 너같이 오륙천 원씩 학교에 디밀고 제 손으로 가르친 남의 딸자식 유인하는 것이 유리하게 쓰는 방법이나?”

15아까부터 상훈이의 말이 화룻가에 앉아서 폭발탄을 만지작거리는 것 같아서 위태위태하더라니 겨우 간정되려던 영감의 감정에 또 불을 붙여 놓고 말았다.

16상훈이는 어이가 없어서 얼굴이 벌게진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조 의관(덕기의 조부)이 죽고, 덕기가 재산 상속자가 된다. 조 의관의 유산 목록에 정미소가 없었다는 것을 안 상훈은 정미소를 차지하려고 한다. 한편 상훈은 세간 값을 적은 종이들을 덕기에게 보내 값을 치르라고 한다.

MEMO

17“어제 그건 봤니?”

18부친이 비로소 말을 붙이나 아들은 다음 말을 기다리고 가만히 앉았다.

19“치를 수 없거든 거기 두고 가거라.”

20역정스러운 목소리나 여자 손들이 많은데 구차스럽게 세간 값으로 부자 충돌을 하는 꼴을 보이기 싫기 때문에

21① 아들의 입을 미리 막으려는 것이다.

22“안 치러 드린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23턱기는 너무 오래 잠자코 있을 수 없어서 말부리만 따고 또 가만히 고개를 떨어뜨리고 앉았다. 24그러나 복통이 터져서 속은 끓었다. 25속에 있는 말이나 시원스럽게 하고 싶으나 부친 앞에서, 더구나 조인광좌(稠人廣座)\* 중에서 그럴 수도 없다.

26“이 판에 용이 이렇게 과하시면 어떡합니까. 여간한 세간 나부랭이야 저 집에 안 쓰고 굴리는 것만 갖다 놓으셔도 넉넉할 게 아닙니까?”

27안방 치장 하나에 천여 원 돈을 묶어서 들인다는 것은 생돈 잡아먹는 것 같고, 누가 치르든지 간에 어려운 일이다.

28“이 판이 무슨 판이란 말이나? 그 따위 아니꼬운 소리 할 테거든 그거 내놓고 어서 가거라. 안 쓰고 굴리는 세간은 너나 쓰렴!”

29영감은 자식에게라도 좀 점해서\* 그런지 화만 버럭버럭 내고 호령이다.

30“할아버지께서 산소에 돈 쓰신다고 반대하시던 걸 생각하시기로 [B] ……”

31“무어 어째? 널더러 먹여 살리라니? 걱정 마라. 아니꼽게 내가 무슨 총찰이나? 그러나 정미소 장부는 이따라도 내게로 보내라.”

32부친은 이 말을 하려고 트집을 잡는 것이었다.

33“정미소 아니라 모두 내놓으라셔도 못 드릴 것은 아닙니다마는, 늘 이렇게만 하시면야 어디 드릴 수 있겠습니까?”

34“드릴 수 있고 없고 간에, 내 거는 내가 찾는 게 아니냐?”

35“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제게 두시면 어디 갑니까?”

36“이놈 불한당 같은 소리만 하는구나? 돈 천도 못 되는 것을 치러 줄 수 없다는 놈이 무어 어째?”

37부친은 신경질이 일어났는지 별안간 달려들더니 주먹으로 뺨을 갈기려는 것을 덕기가 별떡 일어서니까 주먹이 어깨에 맞았다. 38병적인지 벌써 망녕인지는 모르겠으나 점점 흥분하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하고 마루로 피해 나와 버렸다.

39그러나 금시로 정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 속에 앉은 부친은 판 세상 사람같이 생각이 들었다. 40㉠ 신앙을 잃어버리고 사회적으로 활약할 야심이나 희망까지 길이 막히고 보면야, 생활이 거칠어 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동정도 하는 한편인데, 이미 신앙을 잃어버린 다



음에야 가면을 벗어 버리고 파탈하고 나서는 것도 오히려 나은 일이라  
고도 하겠으나, 노래(老來)에 이렇게도 생활이 타락하여 갈까 하고, 덕  
기는 부친에게 반항하기보다도 다만 혼자 탄식을 하는 것이었다.

- 염상섭, 「삼대」 -

- \* 조인광좌 : 여러 사람이 뻥뻥하게 많이 모인 자리.
- \* 점해서 : 부끄럽고 미안해서.

14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훈의 부친은 족보를 만드는 데에 ‘한 천 원’이 들었다며 다행이라 여기고 있다.
- ② 상훈의 부친은 상훈이 ‘오륙천 원’을 학교에 ‘디밀’었던 것은 돈을 ‘유리하게’ 쓴 것이 아니라고 본다.
- ③ 상훈은 자신의 부친이 ‘산소’에 ‘돈’을 쓰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 ④ 덕기는 ‘세간 값’으로 치러야 하는 돈을 낭비라고 생각한다.
- ⑤ 덕기는 집안의 재산이 낭비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정미소 장부’를 내놓지 않으려 한다.

15 **윗글의 맥락을 고려할 때,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들에게 말을 돌려서 하려는 것이다.
- ② 아들의 말에 놀라움을 표시하려는 것이다.
- ③ 아들과 자신의 의견을 같게 하려는 것이다.
- ④ 아들에게 하고자 했던 말을 참으려는 것이다.
- ⑤ 아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못 하게 하려는 것이다.

16 **[A], [B]에서 각각 드러나는 부자간의 갈등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B]와 달리 [A]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의 치부를 들추어내며 책망한다.
- ② [A]와 달리 [B]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동정한다.
- ③ [A]와 달리 [B]에서는 아버지가 자신의 잘못을 아들의 탓으로 돌린다.
- ④ [A]와 [B] 모두에서 아버지는 아들의 간섭을 못마땅해한다.
- ⑤ [A]와 [B] 모두에서 아들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아버지의 행위를 문제 삼는다.



MEMO

17 <보기>를 바탕으로 ㉠과 ㉡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삼대」의 서술자는 대체로 특정 인물의 시각에 의존하여 다른 인물을 서술 대상으로 포착한다. 이때 그 특정 인물은 장면에 따라 선택되며, 서술자는 특정 인물의 시각을 통해 서술 대상이 되는 인물들의 심리를 보여 준다. 이러한 서술 방식으로 서술자는 특정 인물이 지닌 의식과 행동 사이의 인과관계, 다른 인물과의 관계에서 겪는 심리적 갈등을 통해 인물의 성격과 그에 대한 평가를 복합적으로 드러낸다.

- ① ㉠에서는 서술자가 선택한 특정 인물이 영감에서 아들로 달라지는 반면, ㉡에서는 덕기로 고정되어 있다.
- ② ㉠에서는 서술 대상인 상훈의 의식과 행동 사이의 인과관계가, ㉡에서는 덕기가 포착한 상훈의 심리적 갈등이 드러난다.
- ③ ㉠에서는 영감의, ㉡에서는 덕기의 시각에서 서술 대상인 상훈을 낮게 평가하며 그와의 심리적인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에서는 서술 대상인 상훈에 대한 영감의 평가가 달라지는 반면, ㉡에서는 서술 대상인 상훈에 대한 덕기의 평가가 달라지지 않는다.
- ⑤ ㉠에서는 서술자가 선택한 특정 인물인 영감의 성격이, ㉡에서는 서술자가 선택한 특정 인물인 덕기와 서술 대상인 상훈의 성격이 드러난다.

# \* 5 회 차

MEMO

고전 시가 (1)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22학년도 9월 평가원 )

(가)

- 1공후배필은 못 바라도 군자호구 원하더니
- 2삼생의 원업(怨業)이오 월하의 연분으로
- 3장안유협(長安遊俠) 경박자(輕薄子)를 ㉠ 꿈같이 만나 있어
- 4당시의 용심(用心)하기 살얼음 디디는 듯
- 5삼오이팔 겨우 지나 천연여질 절로 이니
- 6이 얼굴 이 태도로 백년기약하였더니
- 7연광(年光)이 훌훌하고 조물이 다시(多猜)\*하여
- 8봄바람 가을 물이 베오리에 북 지나듯
- 9설빈화안 어디 두고 면목가증(面目可憎)\* 되거고나
- 10내 얼굴 내 보거니 어느 임이 날 필소냐

[A]

(중략)

- 11옥창에 심은 매화 몇 번이나 피여 진고
- 12겨울밤 차고 찬 제 자취는 셋거 치고
- 13여름날 길고 길 제 굶은비는 무슨 일고
- 14삼춘화류(三春花柳) 호시절(好時節)의 경물이 시름없다
- 15가을 달 방에 들고 **실슬(蟋蟀)이 상(床)에 올 제**
- 16**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험만 많다
- 17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 18도로혀 풀쳐 헤니 이리하여 어이하리
- 19청등을 돌려 놓고 녹기금(綠綺琴) 빗겨 안아
- 20벽련화(碧蓮花) 한 곡조를 시름 좇아 셋거 타니
- 21소상야우(瀟湘夜雨)의 댛소리 섯도는 듯
- 22화표천년(華表千年)의 별학이 우니는 듯
- 23옥수(玉手)의 타는 수단 옛 소리 있다마는
- 24**부용장(芙蓉帳) 적막하니 뉘 귀에 들리소니**
- 25간장이 구곡되어 굽이굽이 끊쳤어라
- 26차라리 잠을 들어 ㉡ 꿈에나 보려 하니
- 27바람의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
- 28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다

[B]

- 허난설헌, 「규원가」 -

\* 다시 : 시기가 많음.

\* 면목가증 : 얼굴 생김이 남에게 미움을 살 만한 데가 있음.

(나)



1재 위에 우뚝 선 소나무 바람 불 적마다 흔들흔덕  
 2개울에 섰는 버들 무슨 일 좇아서 흔들흔들 [C]  
 3임 그려 우는 눈물은 옹거니와 입하고 코는 어이 무슨 일 좇아서 후루  
 록 비쪽 하나니

- 작자 미상 -

1 [A]~[C]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여성의 생활에 밀접한 소재를 활용하여 흘러가는 세월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 ② [B]는 단어를 반복하는 구절을 행마다 사용하여 화자가 주목하는 각 계절의 특성을 강조하였다.
- ③ [C]는 두 대상을 받음이 비슷한 의태어로 표현하여 움직이는 모습의 유사성을 드러내었다.
- ④ [A], [B]는 계절적 배경을 알려 주는 시어를 활용하여 시간에 따라 화자의 처지가 달라졌음을 드러내었다.
- ⑤ [B], [C]는 대구를 활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였다

2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흐릿한 기억 때문에 혼란스러운 화자의 심정을 나타낸다.
- ② ㉠은 현실에서는 화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선택한 방법이다.
- ③ ㉠은 임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에서, ㉡은 임과의 이별에 대한 망각에서 비롯된다.
- ④ ㉠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회상하고, ㉡은 곧 일어날 일에 대해 단정하고 있다.
- ⑤ ㉠은 인연의 우연성에 대한, ㉡은 재회의 필연성에 대한 화자의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MEMO

3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 (나)는 이별에 대한 서로 다른 대처를 보여 준다. (가)의 화자는 외부와 단절된 채 자신의 쓸쓸한 내면에 몰입하고, 자신의 슬픔을 주변으로 확장한다. (나)의 화자는 외부 대상의 모습에서 자신과의 동질성을 발견하며 슬픔을 확인하면서도, 슬픔을 분출하는 자신의 우스운 외양에 주목한다. (가)는 슬픔을 확장하고 펼쳐 뉘그러, (나)는 슬프지만 슬픔과 거리를 둬으로써 이별에 대처한다.

- ① (가)에서 '실솔이 상에 올 제'는 화자가 자신의 슬픔을 주변으로 확장한 것을 보여 주는군.
- ② (가)에서 '부용장 적막하니 뉘 귀에 들리소니'는 화자가 외부와의 교감을 거부하고 내면에 몰입하는 모습을 드러내는군.
- ③ (나)에서 화자는 '소나무'가 '바람 불 적마다 흔덕'거리는 모습에서 자신과의 동질성을 발견한 것이겠군.
- ④ (가)의 '삼춘화류'는, (나)의 '버들'과 달리 화자의 내면과 대비되어 외부와의 단절감을 강조하는군.
- ⑤ (나)의 '후루룩 비쭈'하는 '입하고 코'는, (가)의 '긴 한숨 지는 눈물'과 달리 화자가 자신의 우스운 외양에 주목하여 슬픔과 거리를 두는 것을 보여 주는군.



MEMO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21학년도 수능 )

(가)

<sup>1</sup>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sup>2</sup>혼싱 연분(緣分)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  
<sup>3</sup>나 하나 껌어 잇고 님 하나 날 괴시니  
<sup>4</sup>이 막음 이 스랑 견줄 디 노여 업다  
<sup>5</sup>평싱(平生)애 원(願)호요디 혼디 네자 호앗더니  
<sup>6</sup>늪거야 므스 일로 외오 두고 그리는고  
<sup>7</sup>엇그제 님을 띄셔 광한던(廣寒殿)의 올낫더니  
<sup>8</sup>그 더디 엇디호야 하계(下界)에 내려오니  
<sup>9</sup>올 저기 비슨 머리 헛틀언 디 삼 년일쇠  
<sup>10</sup>연지분(胭脂粉) 잇너마는 놀 위호야 고이 홀고  
<sup>11</sup>막음의 락친 실음 텃텃(疊疊)이 싸혀 이셔  
<sup>12</sup>짓느니 한숨이오 디느니 눈물이라  
<sup>13</sup>인싱(人生)은 유한(有限) 혼디 시름도 그지업다  
<sup>14</sup>무심(無心)호 세월(歲月)은 물 흐르듯 호는고야  
<sup>15</sup>염낭(炎涼)이 새를 아라 가는 듯 고태 오니  
<sup>16</sup>똥거니 보거니 늦길 일도 하도 할샤  
<sup>17</sup>동풍이 건듯 부러 적설(積雪)을 헤터 내니  
<sup>18</sup>창(窓) 밧기 심근 락화(梅花) 두세 가지 띄여세라  
<sup>19</sup>궂득 냉담(冷淡) 혼디 암향(暗香)은 므스 일고  
<sup>20</sup>황혼의 들이 조차 벼마티 빗최니  
<sup>21</sup>늦기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sup>22</sup>더 락화 것거 내여 님 겨신 디 보내오져  
<sup>23</sup>님이 너를 보고 엇더타 너기실고

- 정철, 「사미인곡」 -

(나)

<sup>1</sup>창 밧기 워석버석 님이신가 니러 보니  
<sup>2</sup>혜란(蕙蘭) 혜경(蹊徑)\*에 낙엽은 므스 일고  
<sup>3</sup>어즈버 유한(有限)호 간장(肝腸)이 다 그출가 호노라

- 신희 -

\* 혜란 혜경 : 난초 핀 지름길.

(다)

<sup>1</sup>나는 예전에 장흥방의 길가집에 살았다. <sup>2</sup>그 집은 저갓거리애 제법 가  
 까워서 소란스러웠다. <sup>3</sup>문 옆에 한 칸짜리 초당이 있어 벗짚으로 덮고 흙  
 을 쌓았더니 그윽하고 조용해서 살 만했다. <sup>4</sup>그러나 초당이 동쪽으로 치우  
 쳐 햇볕을 받았기에 여름이면 너무 더웠다. <sup>5</sup>그래서 ‘고요함이 더위를 이

MEMO

간대[靜勝熱]’는 말을 당호(堂號)\*로 정해 문설주에 편액을 해 걸어 두고 위안을 삼았다.

<sup>6</sup>대저 고요함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몸의 고요함이요, 다른 하나는 마음의 고요함이다. <sup>7</sup>몸이 고요한 사람은, 앉고 눕고 일어나고 서는 등 모든 행동에 있어 편안함을 취할 뿐이다. <sup>8</sup>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천하만사가 마치 촛불로 비취 보고 거북이로 점을 치는 듯하니 시원한 날씨와 더운 날씨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sup>9</sup>그러므로 ‘고요함이 이긴다’고 한 지금의 말은 마음의 고요함을 가리킨다.

<sup>10</sup>그 집에서 이십 년을 살고 이사하였다. <sup>11</sup>그로부터 삼 년이 흐른 뒤 옛 집을 찾아가 보았다. <sup>12</sup>그새 주인이 바뀐 지 여러 번이지만 집은 옛 모습 그대로였다.

<sup>13</sup>은은하게 처마에 들어오는 산빛, 칼칼할 담을 따라 도는 골짜기 물, 밀랍으로 발라 번들번들한 살창, 쪽빛으로 물들여 놓은 늘어진 전막.

(중략)

<sup>14</sup>내가 여기에 살던 시절은 집안이 번성하던 때였다. <sup>15</sup>선친께서 승명전에 봉직하실 때라, 퇴근하신 밤이면 우리 형제들이 모시고 앉아 학문과 예술을 담론하고 옛일을 기록하거나, 시를 읽거나 거문고를 들었으니 유중영의 옛일\*과 비슷하였다. <sup>16</sup>그 즐거움을 잊을 수는 없건마는 다시 되찾을 수는 없다!

<sup>17</sup>『서경』에 ‘그릇은 새것을 찾고, 사람은 옛 사람을 찾는다.’라고 했다. <sup>18</sup>집 역시 그릇과 같이 무언가를 담는 부류이긴 하나, 사람은 집이 아니면 몸을 붙여 머물 데가 없고 집보다 더 거처를 많이 하는 것은 없으므로, 집은 그릇보다는 사람에게 가깝다 하겠다. <sup>19</sup>그러니 어찌 그리워하지 않을 수 있으랴!

<sup>20</sup>그렇지만 인간사가 벌써 바뀌어, 사물에 닿을 때마다 슬픔만 더하므로 이 집에 다시 살고 싶지는 않다. <sup>21</sup>마땅히 임원(林園)\*에 집터를 보아 집을 지어서 옛 이름의 편액을 걸어 옛집에서 지냈던 뜻을 잊지 않으려 한다.

<sup>22</sup>누군가는 ‘임원이 이미 고요하거늘, 지금 다시 ‘고요함이 이긴다’고 하면 또한 군더더기가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sup>23</sup>나는 답하리라. <sup>24</sup>‘고요한데 또 고요하니, 이것이야말로 고요함이라네.’라고.

- 유본학, 「옛집 정승초당을 둘러보고 쓰다」 -

- \* 당호 : 집에 붙이는 이름.
- \* 유중영의 옛일 : 당나라 때 문신 유중영이 늘 책을 가까이하며 자식들을 가르치던 일.
- \* 임원 : 산림.



MEMO

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노여'와 (나)의 '다'라는 수식어는 모두 임에 대한 원망의 정서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 ② (가)의 '흐느고야'와 (나)의 '흐노랴'는 모두 화자의 의지를 단정적인 종결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 ③ (가)의 '미화'와 (나)의 '해란'은 모두 화자와 동일시되는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 ④ (가)의 '므스 일고'와 (나)의 '므스 일고'는 모두 뜻밖의 대상과 마주하게 된 반가움을 영탄적 어조로 표현한 것이다.
- ⑤ (가)의 '님이신가'와 (나)의 '님이신가'는 모두 임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을 독백적 어조로 드러낸 것이다.

5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에는 천상의 시간과 지상의 시간이 모두 나타난다. 천상에서는 지상과 달리 생로병사의 과정 없이 끝없는 사랑이 지속된다. 이러한 시간적 질서는 지상에 내려온 화자를 힘겹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화자는 지상의 물리적 시간을 심리적으로 변형하여 자신의 심경을 드러낸다.

- ① 임과의 '연분'을 '하늘'과 연결 짓는 것은, 임과의 사랑이 천상의 시간 질서처럼 끝없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겠어.
- ② '점어 잇고'와 '늑거야'를 통해 화자가 천상의 시간에서 벗어나 지상의 시간으로 편입되었음을 알 수 있겠어.
- ③ '삼 년' 전을 '엇그제'로 인식하는 것에서, 임과 함께한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어 지상의 물리적 시간이 심리적으로 압축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어.
- ④ '인칭은 유흔'과 '무심흔 세월'을 통해 지상의 시간적 질서에 따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줄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엿볼 수 있겠어.
- ⑤ '염냥이 '가는 듯 고터' 온다는 인식에서, 임과의 관계 단절에 따른 절망감으로 인해 지상의 물리적 시간이 심리적으로 지연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어.



MEMO

6 <보기>를 바탕으로 (나),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고요함은 소리나 움직임이 없이 잠잠한 상태인 외적 고요와 마음이 평온한 상태인 내적 고요로 구분할 수도 있다. 이에 주목하여 (나)를 감상할 때, 화자가 처한 상황과 그에 따른 심리는 고요함의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다)에서 필자는 고요함에 대한 통찰을 통해 자신이 처한 공간에서 내적 고요를 추구하려 하는데, 이를 통해 삶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슬픔을 이겨 내는 동력을 얻고 있다.

- ① (나)에서 ‘낙엽’ 소리가 창 안에서도 들린다는 것은 화자가 외적 고요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겠군.
- ② (나)에서 ‘낙엽’ 소리를 입이 오는 소리로 착각했다는 것은 화자의 심리가 내적 고요의 상태에 있지 못했기 때문이겠군.
- ③ (다)에서 ‘사물에 닿을 때마다 슬픔만 더’한다는 것은 옛집을 돌아본 경험이 필자로 하여금 내적 고요를 이루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겠군.
- ④ (다)에서 ‘옛집’의 ‘초당’에 붙였던 당호를 ‘임원’의 새집에서도 사용하겠다는 것은 필자가 외적 고요에 더해 내적 고요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⑤ (다)에서 ‘누군가’가 ‘고요함이 이긴다’는 당호를 ‘군더더기’로 본다는 것은 외적 고요만으로는 삶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슬픔을 이겨 내기 어렵다고 여겼기 때문이겠군.

7 (가)와 (다)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다) 모두 인간의 외양이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나타나 있다.
- ② (가)와 (다) 모두 오래된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더 중시하는 삶의 자세가 나타나 있다.
- ③ (가)와 (다) 모두 자신이 있는 공간에서 그 공간에 부재하는 대상을 떠올리는 상황이 나타나 있다.
- ④ (가)에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순응적 태도가, (다)에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극복 의지가 나타나 있다.
- ⑤ (가)에는 과거와 달라진 타인의 마음에 대한, (다)에는 과거와 달라진 자신의 마음가짐에 대한 아쉬움이 나타나 있다.



8 (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여름에 더웠던 경험을 바탕으로 옛집 초당의 당호를 정하게 된 내력을 서술하고 있다.
- ② 과거 인물의 행적에 비추어, 다시 찾은 옛집에서 떠올린 기억에 대한 감회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새집에 붙이고자 하는 당호의 의미를 통해 옛집에서 다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 ④ 변함없는 옛집의 외양과 달리, 변해 버린 인간사로 인해 새집을 지으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 ⑤ 집이 그릇과 같은 부류이지만 사람을 담고 있는 존재라는 점에 주목하여 옛집에 대한 그리움을 부각하고 있다.

M E M O

MEMO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18학년도 수능 )

(가)

<sup>1</sup>반(半) 밤중 혼자 일어 문노라 이내 꿈아

<sup>2</sup>만 리(萬里) 요양(遼陽)\*을 어느덧 다녀온고

<sup>3</sup>반갑다 학가(鶴駕)\* 선객(仙客)을 친히 뵈 듯하여라

<제1수>

<sup>4</sup>박제상\* 죽은 후에 님의 시름 알 이 업다

<sup>5</sup>이역(異域) 춘궁(春宮)을 뉘라서 모셔 오리

<sup>6</sup>지금에 치술령 귀훈(歸魂)을 못내 슬허호노라

<제4수>

<sup>7</sup>조정을 바라보니 무신(武臣)도 하 만하라

<sup>8</sup>신고(辛苦)흔 화친(和親)을 누를 두고 흔 것인고

<sup>9</sup>슬프다 조구리(趙廐吏)\* 이미 죽으니 참승(參乘)홀\* 이 업세라

<제6수>

<sup>10</sup>구중(九重) 달 밝근 밤의 성려(聖慮)\* 일정 만흐려니

<sup>11</sup>이역 풍상(風霜)에 학가인들 이즐쏘냐

<sup>12</sup>이 밖에 억만창생(億萬蒼生)을 못내 분별호시도다

<제7수>

<sup>13</sup>구렁에 났는 ㉠ 풀이 봄비에 절로 길어

<sup>14</sup>아는 일 업스니 그 아니 조홀쏘냐

<sup>15</sup>우리는 너희만 못하여 시름겨워 호노 라

<제8수>

<sup>16</sup>조그만 이 한 몸이 하늘 밖에 떨어지니

<sup>17</sup>오색 구름 깊은 곳에 어느 것이 서을인고

<sup>18</sup>바람에 지나는 ㉡ 검불\* 갖하여 갈 길 몰라 호노라

<제9수>

- 이정환, 「비가(悲歌)」 -

\* 요양 : 청나라의 심양.

\* 학가 : 세자가 탄 수레. 또는 세자. 여기서는 병자호란에서 패배하여 심양에 갇혀 간 소현 세자를 가리킴.

\* 박제상 : 신라의 충신. 왕의 아우가 왜에 볼모로 잡히자 그를 구하고 자신은 희생 됨.

\* 조구리 : 조씨 성을 가진 마부. 충신을 가리킴.

\* 참승홀 : 높은 이를 호위하여 수레에 같이 탈.

\* 성려 : 임금의 염려.

\* 검불 : 마른 나뭇가지나 낙엽 따위.



MEMO

(나)

<sup>1</sup>이전 서울 계동 홍술햇골에서 살 때 일이었다. <sup>2</sup>휘문 중학교의 교편을 잡고, 독서, 작시(作詩)도 하고, 고서도 사들이고, 그 틈으로써 난을 길렀던 것이다. <sup>3</sup>한가롭고 자유로운 맛은 몹시 바쁜 가운데에서 깨닫는 것이다. <sup>4</sup>원고를 쓰다가 밤을 새우기도 왕왕하였다. <sup>5</sup>그러하면 그러할수록 난의 위안이 더 필요하였다. <sup>6</sup>그 푸른 잎을 보고 방렬(芳烈)한 향을 맡을 순간엔, 문득 환희의 별유세계(別有世界)에 들어 무아무상의 경지에 도달하기도 하였다.

<sup>7</sup>그러다가 조선어 학회 사건에 피검되어 홍원 함흥서 2년 만에 돌아와 보니 난은 반수 이상이 죽었다. <sup>8</sup>그해 여산으로 돌아와서 십여 분을 간신히 살렸다. <sup>9</sup>갑자기 8·15 광복이 되자 나는 서울로 또 가 있었다. <sup>10</sup>한겨울을 지내고 와 보니 난은 모두 죽었고, 겨우 뿌리만성한 것이 두어 개 있었다. <sup>11</sup>그걸 서울로 가지고 가 또 살려 잎이 돌아나게 하였다. <sup>12</sup>건란(建蘭)과 춘란(春蘭)이다. <sup>13</sup>춘란은 중국 춘란이 진기한 것이다. <sup>14</sup>꽃이나 보려 하던 것이, 또 6·25 전쟁으로 피란하였다가 그 다음 해 여름에 가 보니, 장독대 옆 풀숲 속에 그 고해(枯骸)만 영성하게 남아 있었다.

<sup>15</sup>그 후 전주로 와 양사재에 있으며, 소공(素空)이 건란 한 분을 주었고, 고경선 군이 제주서 풍란 한 등걸을 가지고 왔다. <sup>16</sup>풍란에 웅란(雄蘭)·자란(雌蘭) 두 가지가 있는데, 자란은 이왕 안서(岸曙) 집에서 보던 것으로서 잎이 넓적하고, 웅란은 잎이 좁고 빼어났다. <sup>17</sup>물을 자주 주고, 겨울에는 특히 옹호하여, 자란은 네 잎이 돋고 웅란은 다복다복하게 길었다. <sup>18</sup>벌써 네 해가 되었다.

<sup>19</sup>십여 일 전 나는 바닷개를 먹고 중독되어 괘란(霍亂)이 났다. <sup>20</sup>5, 6일 동안 미음만 마시고 인삼 몇 뿌리 달여 먹고 나왔으며, 그래도 병석에 누워 더 조리하였다. <sup>21</sup>책도 보고, 시도 생각해 보았다. <sup>22</sup>풍란은 곁에 두었다. <sup>23</sup>하얀 꽃이 몇 송이 별었다. <sup>24</sup>방렬·청상(清爽)한 향이 움직이고 있다. <sup>25</sup>나는 밤에도 자다가 깨었다. <sup>26</sup>그 향을 맡으며 이렇게 생각을 하여 등불을 켜고 노트에 적었다.

- <sup>27</sup>잎이 뺏뺏하고도 오히려 영롱(玲瓏)하다
- <sup>28</sup>썩은 향나무 껍질에 옥(玉) 같은 뿌리를 서려 두고
- <sup>29</sup>청량(淸涼)한 물기를 머금고 바람으로 사노니

[A]

- <sup>30</sup>꽃은 하얗고도 여린 자연(紫煙) 빛이다
- <sup>31</sup>높고 조출한 그 품(品)이며 그 향(香)이
- <sup>32</sup>숲속에 숨겨 있어도 아는 이는 아노니

<sup>33</sup>완당 선생이 한묵연(翰墨緣)이 있다듯이 나는 난연(蘭緣)이 있고 난복(蘭福)이 있다. <sup>34</sup>당외자, 계수나무도 있으나, 이 웅란에는 백중(伯仲)할 수 없다. <sup>35</sup>이 웅란은 난 가운데에도 가장 진귀하다.

MEMO

<sup>36</sup>‘간죽하수문주인(看竹何須問主人)\*’이라 하는 시구가 있다. <sup>37</sup>그도 그럴듯하다. <sup>38</sup>나는 어느 집에 가 그 난을 보면,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겠다. <sup>39</sup>고서도 없고, 난도 없이 되잖은 서화나 붙여 놓은 방은, 비록 화려 광활하다 하더라도 그건 한 요릿집에 불과하다. <sup>40</sup>두실 와옥(斗室蝸屋)\* 이라도 고서 몇 권, 난 두어 분, 그리고 그 사이 술이나 한 병을 두었다면 삼공(三公)을 바꾸지 않을 것 아닌가! <sup>41</sup>뺨은 육체나 기를 따름이지만 난은 정신을 기르지 않는가!

- 이병기, 「풍란」 -

\* 간죽하수문주인 : ‘대숲을 봤으면 그만이지 그 주인이 누구인지 물을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뜻.

\* 두실 와옥 : 몹시 작고 누추한 집.

9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는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적 상황에 당면하여 고뇌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② (가)에는 시대적 고난에 맞서지 못하는 자신의 나약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③ (나)에는 인간의 유한한 삶에 대해 한탄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④ (나)에는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절망적 현실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⑤ (가)와 (나)에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비롯된 삶에 대한 회의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10 (가),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학자 선객’을 ‘꿈’에서나마 본 일을 언급함으로써 그를 만나고 싶어 하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군.
- ② (가)는 ‘박제상’이 살았던 시대와 대비함으로써 그와 같은 충신을 찾기 어려운 시대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군.
- ③ (가)는 자신의 ‘몸’이 하늘 밖에 떨어진 상황을 설정하여 현실의 문제를 떠나 고통을 잠시라도 잊으려는 화자의 지향을 드러내고 있군.
- ④ (나)는 역사적 상황에 따른 작가의 행적과 ‘난’의 생사를 관련 지어 언급함으로써 ‘난’에 대한 작가의 애착을 드러내고 있군.
- ⑤ (나)는 ‘두실 와옥’에 사는 사람이라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난’을 통해 작가가 지향하는 정신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군.



11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화자가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소재이다.
- ② ㉠과 ㉡은 모두 세월의 흐름을 나타내어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하는 소재이다.
- ③ ㉠은 화자의 울분을 심화하는 소재로, ㉡은 화자의 울분을 완화하는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 ④ ㉠은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인식의 계기가, ㉡은 과거의 사건에 대한 회고의 계기가 된 소재이다.
- ⑤ ㉠은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소재로, ㉡은 화자의 처지와 동일시되는 소재로 제시되고 있다.

12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임병양탄 이후의 사대부들 사이에서는 긴 사연을 담을 수 있는 연시조 양식을 활용해 전란 후 현실의 문제를 다루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병자호란 직후 지어진 「비가」에도, 잡혀간 세자를 그리는 마음, 임금을 향한 충정, 전란 후 상황에 대한 견해 등 여러 내용이 복합되어 있다. 각 수의 시어를 연결하여 이해할 때 그 같은 내용들이 올바르게 파악될 수 있다.

- ① <제1수>의 ‘어느덧 다녀온고’와 <제4수>의 ‘뉘라서 모셔 오리’라는 진술에는 잡혀간 세자를 그리는 화자의 마음이 투영되어 있다.
- ② <제4수>의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님의 시름’에 대해, <제6수>의 ‘조구리’와 같은 인물이 없는 현실에 처한 화자는 애석함을 느끼고 있다.
- ③ <제6수>에서 조정에 많은 ‘무신’이 남아 있음에도 ‘신고훈화친’을 맺은 결과로 <제7수>에서 세자가 ‘이역 풍상’을 겪는다고 화자는 판단하고 있다.
- ④ <제7수>에서 근심에 싸여 있는 ‘구중’의 임금을 떠올렸던 화자는 <제9수>에서는 ‘서울’을 찾지 못해 애태우고 있다.
- ⑤ <제7수>의 ‘달 말근 밤’과 <제8수>의 ‘봄비’에는 부정적 현실이 개선되리라는 화자의 전망과 기대가 담겨 있다.

M E M O

MEMO

13 (나)의 맥락을 고려하여 [A]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썩은 향나무 껍질’과 대조적인 의미를 지니는 ‘옥 같은 뿌리’는 ‘화려 광활’한 이미지를 지닌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A]의 ‘높고 조출한 그 품이며 그 향은 ‘풍란’의 속성을 드러낸 것으로, 작가가 ‘풍란’을 곁에 두고자 하는 이유로 볼 수 있겠군.
- ③ [A]의 ‘이는 이’는 ‘풍란’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사람으로, ‘난연’과 ‘난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작가도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A]는 평소 ‘난’을 통해 ‘위안’을 얻던 작가가 ‘병석’에 누워 조리할 때 ‘풍란’에서 영감을 얻어서 창작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A]는 ‘난’과 함께한 작가의 정신세계를 함축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풍란’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09학년도 수능 )

M E M O

(가) <sup>1</sup>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님은 갔습니다.  
<sup>2</sup>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sup>3</sup>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  
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sup>4</sup>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  
쳐서 사라졌습니다.  
<sup>5</sup>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  
습니다.  
<sup>6</sup>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  
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sup>7</sup>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① 견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sup>8</sup>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sup>9</sup>아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sup>10</sup>②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 한용운, 「님의 침묵」 -

(나) <sup>1</sup>크낙산 골짜기가 온통  
<sup>2</sup>연록색으로 부풀어 올랐을 때  
<sup>3</sup>그러니까 신록이 우거졌을 때  
<sup>4</sup>그곳을 지나가면서 나는  
<sup>5</sup>미처 몰랐었다  
  
<sup>6</sup>뒷절로 가는 길이 온통  
<sup>7</sup>주황색 단풍으로 물들고 나뭇잎들  
<sup>8</sup>무더기로 바람에 떨어지던 때  
<sup>9</sup>그러니까 낙엽이 지던 때도  
<sup>10</sup>그곳을 거닐면서 나는  
<sup>11</sup>느끼지 못했었다  
  
<sup>12</sup>이렇게 한 해가 다 가고  
<sup>13</sup>눈발이 드문드문 흩날리던 날  
<sup>14</sup>양상한 대추나무 가지 끝에 매달려 있던



MEMO

<sup>15</sup>㉠ 나뭇잎 하나

<sup>16</sup>문득 혼자서 떨어졌다

<sup>17</sup>저마다 한 개씩 돌아나

<sup>18</sup>여럿이 모여서 한여름 살고

<sup>19</sup>마침내 저마다 한 개씩 떨어져

<sup>20</sup>그 많은 나뭇잎들

<sup>21</sup>사라지는 것을 보여 주면서

- 김광규, 「나뭇잎 하나」 -

- (다) <sup>1</sup>삼경에 못 든 잠을 사경 말에 비로소 들어  
<sup>2</sup>상사(相思)하던 우리 남을 꿈 가운데 해후하니  
<sup>3</sup>시름과 한(恨) 못다 일러 한바탕 꿈 흩어지니  
<sup>4</sup>아리따운 고운 얼굴 곁에 얼핏 앉았는데  
<sup>5</sup>어화 아득하다 꿈을 생시 삼고지고  
<sup>6</sup>잠 못 들어 탄식하고 바삐 일어나 바라보니  
<sup>7</sup>구름산은 첩첩하여 천리몽(千里夢)을 가려 있고  
<sup>8</sup>흰 달은 창창하여 두 마음을 비추었다  
<sup>9</sup>좋은 기약 막혀 있고 세월이 하도 할사  
<sup>10</sup>옛그제 꽃이 버들 곁에 붙었더니  
<sup>11</sup>그 곁에 훌훌하여\* 앞에 가득 가을 소리라  
<sup>12</sup>새벽 서리 지는 달에 외기러기 슬피 울 제  
<sup>13</sup>반가운 님의 소식 행여 올까 바라더니  
<sup>14</sup>아득한 구름 밖에 빈 소리뿐이로다  
<sup>15</sup>지리하다 이 이별이 언제면 다시 볼까  
<sup>16</sup>어화 내 일이야 나도 모를 일이로다  
<sup>17</sup>이리저리 그리면서 어이 그리 못 가는고  
<sup>18</sup>약수(弱水)\* 삼천 리 멀단 말이 이런 곳을 일렀구나  
<sup>19</sup>산 머리에 조각달 되어 님의 낮에 비추고자  
<sup>20</sup>바위 위에 오동 되어 님의 무릎 베고자  
[A] <sup>21</sup>빈산에 잘새 되어 북창(北窓)에 가 올고자  
<sup>22</sup>지붕 위 아침 햇살에 제비 되어 날고지고  
<sup>23</sup>옥창(玉窓)의 앵두화에 나비 되어 날고지고  
<sup>24</sup>태산이 평지 되도록 금강이 다 마르도록  
<sup>25</sup>평생 슬픈 회포 어디에 견주리오

- 작자 미상, 「춘면곡(春眠曲)」 -

\*훌훌하여: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약수: 신선이 사는 땅에 있다는 강 이름.



14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의 상황을 환기하며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 ② 자연의 변화를 표현하여 화자의 미래를 암시한다.
- ③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을 예찬한다.
- ④ 관조적인 자세로 대상이 지닌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다.
- ⑤ 섬세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애상적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15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에서는 사상이 확산되고 있다.
- ② ㉠과 ㉡ 모두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 ③ ㉠은 ㉡과 달리 화자의 의지가 투영되어 있다.
- ④ ㉡은 ㉠에 비해 역동적인 느낌이 두드러진다.
- ⑤ ㉠은 사실의 기술이, ㉡은 관념의 표현이 부각된다.

16 (가)와 (다)를 대응시켜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첫 번째 '아아'와 (다)의 두 번째 '어화'는 부정적 상황에 대한 비탄의 표현으로 볼 수 있군.
- ② (가)의 '차디찬 티끌'과 (다)의 '새벽 서리'는 허무하게 깨진 인연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통하네.
- ③ (가)의 '꽃다운 님의 얼굴'과 (다)의 '아리따운 고운 얼굴'은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 ④ (가)의 '눈물'과 (다)의 '시름과 한'은 이별로 인해 생겨난 슬픔이라 할 수 있어.
- ⑤ (가)의 '다시 만날 것'과 (다)의 '좋은 기약'은 '님'과 만나고 싶은 소망과 관련되겠군.

17 <보기>를 바탕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님의 침묵」에서 '노래'와 '침묵'은 화자와 '님'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시어이다. 한용운은 시 「반비레」에서 “당신이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는 때에 당신의 노랫가락은 역력히 들립니다그려 / 당신의 소리는 침묵이에요”라고 했다. 침묵이라는 부재의 상태에서 '님'의 실재를 본 것이다. 화자는 '님'을 향해 '노래'를 부르는데, 시 「나의 노래」에서 “나의 노래가 산과 들을 지나서 멀리 계신 님에게 들리는 줄”을 안다고 했다. 이는 화자가 자신의 노래에 '님'과 근원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MEMO

- ① 노래가 제 곡조를 못 이긴다는 것은 ‘님’이 침묵하는 상황을 화자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이야.
- ② 노래가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돈다는 것은 화자가 부재 속에 실재하는 ‘님’과 깊이 교감한다는 뜻이야.
- ③ ‘나의 노래’가 산과 들을 지나서 멀리 나아간다고 한 데서 ‘사랑의 노래’가 자연 친화적임을 알 수 있어.
- ④ 침묵을 휩싸고 도는 노래가 ‘사랑의 노래’라는 것은 침묵이 끝나야 사랑이 비로소 시작되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
- ⑤ 침묵하는 ‘님’에게서 노랫가락을 역력히 듣는다는 데서 ‘사랑의 노래’가 화자의 노래가 아니라 ‘님’의 노래임을 알 수 있어.

18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 2연에서 유사한 구조의 문장을 사용함으로써 대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화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 ② 1~3연에서 ‘골짜기’→‘길’→‘대추나무’→‘나뭇잎 하나’로 시적 대상이 바뀌면서 화자와 대상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
- ③ 1~4연에서 ‘그러니까’, ‘문득’, ‘마침내’와 같은 부사는 독자로 하여금 화자의 인식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 ④ 4연에서 ‘저마다 한 개씩’이라는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세상과 화합할 수 없는 존재의 고뇌를 강조하고 있다.
- ⑤ 4연에서 화자는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는 자연물의 변화 과정을 통해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있다.

19 <보기>를 참고하여 [시]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시조나 가사에는, 임과 헤어져 있는 화자가 어떤 특정한 자연물로 다시 태어나서 임의 곁에 머물고 싶다는 진술이 흔히 나타난다. 이러한 진술은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기 위한 관습적 표현인데, 그 속에는 당대인들의 세계관이 투영되어 있다. 인간과 자연이 깊은 관련을 맺으며 조화를 이룬다는 인식, 현세의 인연이 후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순환적 인식 등이 그것이다. 시가에 담긴 이러한 인식은 화자가 현실의 고난이나 결핍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 ① 관습적인 표현을 활용한 것은 개인적 정서를 보편적인 것으로 느끼게 하는 데 효과적이었겠어.
- ② 비슷한 의미 구조를 지나는 구절을 거듭 제시함으로써 화자의 소망이 간절함을 강조하고 있어.
- ③ ‘오동’, ‘제비’, ‘나비’ 등이 사용된 데서, 인간과 자연이 관련되어 있다는 화자의 인식을 엿볼 수 있어.
- ④ ‘조각달’이나 ‘잘새’ 같은 소재에는 ‘님’과 함께 크고 넓은 세계로 도약하려는 화자의 희망이 담겨 있어.
- ⑤ 자연물로 변해서라도 ‘님’과 만나려 하는 것을 보니 화자가 ‘님’과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어.